

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담은 2020생태문화축제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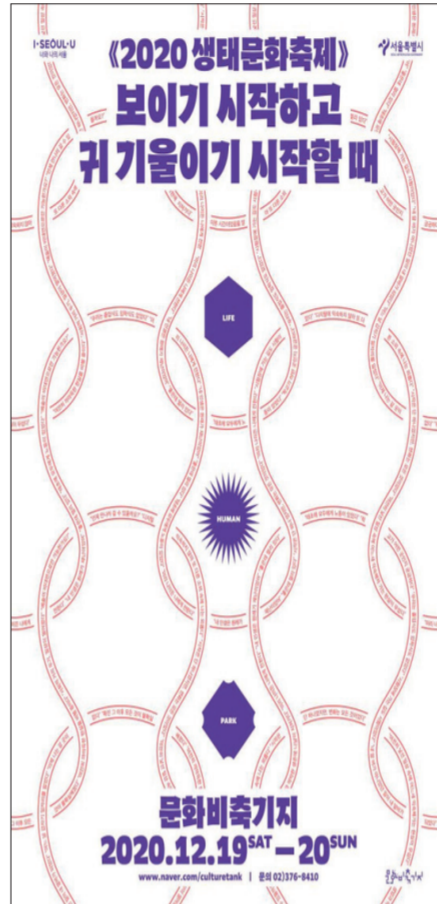
문화비축기지 T6 미디어 파사드 전시 및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 콘텐츠제작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20생태문화축제 '보이기 시작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2020 생태문화축제'는 문화비축기지 T6의 외벽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 '보이기 시작할 때'를 축제기간 19시부터 20시까지 상영...

누구나 야외공간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도 멀리서 감상할 수 있다. '지구에서의 순간들-파도와 일상'은 양영신 작가, 전광표 작가, 주왕택 기술감독이 참여한 미디어 작품이다. 변화되고 멀어진 일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떠올려 보며 스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순간을 영상과 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덴싱 걸 인 서울'은 양영신 작가의 대표작인 덴싱 걸을 문화를 짓고 비축하는 '인간의 몸짓'으로 상징화해 탱크 외벽에 연출할 예정이다...

'돌아보기 시작할 때'는 작가와 음악가들의 연구 에세이와 프로젝트 워크숍이다. 장애 여성 노동 시니어 4개의 주제연구를 나와 사회 사이의 생태적 삶의 관점에서 논의하며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워크숍 결과는 내년 2월 생태문화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이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본 축제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를 모아 2021년 생태문화축제로 이어가는 '과정형' 축제로 구성했다"며 "생태문화축제라는 정체성과 지역의 경제성, 관광적 측면 등 복합적인 축제의 성격은 다소 위축된 상황이나 이를 계기로 자연과 이웃, 무절제한 삶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 생태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축기지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광수/기자



[칼럼] 세계 동물권리의 날



박암/김근식

이른 새벽 암담이 우는소리에 외양간에 잠자던 황소도 마당의 누렁이도 눈비비던 시절이 있었다. 닭장에는 아직 식지 않은 계란이 웅기웅기 담겨있고 한쪽 끝을 송곳니로 뚫어 쪽쪽 빨다보면 고소한 노른자의 목넘김은 그 맛이 일품이다. 사자가 오는 날은 씨암탉 제삿날이고 배를 갈라 보면 아직 출하 직전의 크고 작은 알들이 줄줄이 달려 있어 아이들 입안에 하나씩 분배가 가능했다. 닭은 닭을 가마솥에 푹 고우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다 배를 채울 만큼 양도 넉넉했고 특히 모래주머니의 풀깃함은 식감을 더했다. 온 마당과 뒤뜰을 헤집고 다닌 덕에 근육질로 다져진 닭발까지도 간식거리가 됐다. 이뿐인가. 간혹 친척 중 보신을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키우던 개도 데리고 나가서 목줄만 들고 들어오던 날도 있었다. 개는 직감적으로 지 죽는 줄 알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마지막순간까지 꼬리를 흔든다. 이런 과거가 세월이 지나 이젠 흔하디 흔한 계란을 마트진열장에서 손쉽게 살 수 있지만 파스함도 고소함도 영양가도 전과 같지 않다. 당연히 양계장에 가둬놓고 사료에 항생제 섞어 야 병들지 않으며 밤낮없이 전등을 켜다 켜가며 알을 뽑아내니 그 맛을 다시 볼 수 없을 뿐 더러 별희귀한 성인병이 생기는 것이다. 언제부터가 후라이드 치킨은 국민간식1번으로 한집 건너 치킨집이니 희소가치는 오랜 옛날얘기다. 크거나 육질이나 어디 한군데라도 전과 비교가 될까. 과거의 동물이 한 식구였다면 지금은 고기나 부산물을 얻기 위한 사육일 뿐이지 그 외 어떤 의미도 없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 외에 먹이사슬의 함수관계가 있다. 필요에 의해서 키우지만 누렁이가 장터의 소장수에게 팔려나가고 텅 빈 외양간은 소 값으로 회박되지 않아 막걸리 및 사발에 애환을 달래던 것이 우리민족의 심성이었다. 작금의 육류시장을 보면 넘치는 공급에 귀한 줄도 모르지만 기계적 사육으로 인해 티끌만한 정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입고 있는 모피와 끼고 있는 가죽장갑은 물론, 신고 있는 부츠까지 완성애 앞선 과정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인간이 편익을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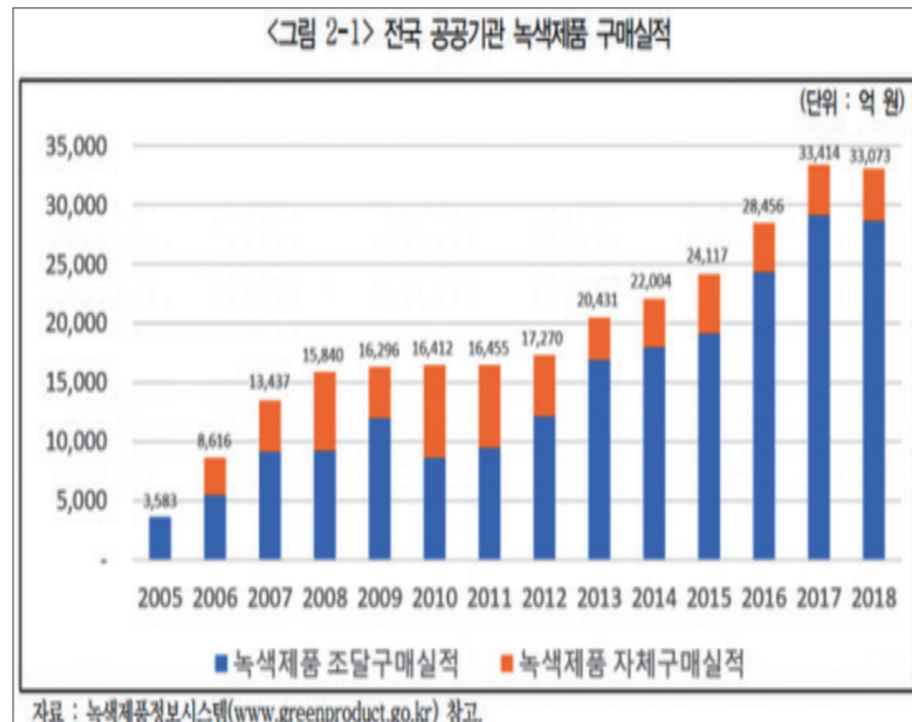
로 추구하는 탐욕의 정당하다. 도축과정이나 분해 유통과정을 제대로 안다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진대 여러가지로 안타까움이 든다. 오래전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먹인 소를 잡는다는 제보로 변두리 축사로 취재간적이 있었다. 소를 높혀놓고 고무호수를 목구멍안쪽까지 쑤셔 박아 배를 채우는 잔인한 현장에서 그 얼마 안 되는 무게의 차익을 위한 인간의 잔인함과 욕심이 끝도 없다는 점에 할말을 잃었다. 차츰 필자도 물먹을 뺐었던 아찔한 위기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점을 체험한 바 있다. 세상사에는 순리라는 게 있다. 지금이야 애완견 전성시대라 개가 웬만한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세상이 됐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토종어류는 매운탕이 돼도 수족관의 열대어는 온갖 정성으로 기용된다. 참새나 꿩은 요리재료지만 잉꼬나 앵무새는 특별대우다. 다 좋지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동물보호의 진정한 노력은 무조건적인 떠받들이 아니라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한다. 유해조류, 유해동물 등 공존할 수 없는 대상도 있지만 부득불 도축이 필요할 때 덜 고통스럽게 식량화 하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배려다. 필자도 동물애호가다 보니 이래저래 식구가 많은 편이지만 말 못하는 짐승을 학대하는 것만큼 비열하고 악의적인 인간은 없다. 자신보다 약자의 입장에 있고 학대해도 담비지 못하는 점을 즐기는 가학적 행위는 가해자 당사자의 인격과도 맞물린다. 지상의 모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존의 관계다. 그것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든 고통을 더하는 것은 오히려 다스려야 한다. 요즘처럼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살처분 당하는 가금류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다. 한번씩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의 폭풍이 휘몰아치면 예방차원에서 살아 있는 동물들을 생매장해야 하는 인간들의 행위에 죽어가는 동물들은 어떤 입장이까. 오늘은 23회를 맞은 세계 동물 권리의 날이다. 사람이야 코로나19의 질병속에 살려고 백신개발이다 뭐다. 온통난리지만 동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일까. 작년 여름 키우던 하얀 아기토끼의 눈빛이 유난히 생각나는 날이다.

경기연구원, "민간부문 녹색제품 구매확산 위해 안정적인 거버넌스 운영과 제도적 보완 필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 구매실적 해마다 증가, 민간부문은 미흡

적극적인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에는 비교적 성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방안을 발간했다. 2019년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매뉴얼개발 및 시범사업이 채택되어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15개 지자체, 총 67곳이 수료했다. 2020년에는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에서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으로 18개 지자체, 115곳이 참여해 진행 중이다. 어린이는 일상생활의 80% 이상을 가정,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실내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어린이 생활환경에 대한 유해인자를 저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관리강화와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문화 활성화가 중요하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도입 시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사업 참여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2019년 41.0%에서 2020년 43.1%로 늘어났으며 녹색제품 구매계획 미수립 유아기관 중심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과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소비가 저조한 이유로 녹색제품 소비에 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녹색제품 관련 홍보 및 정보의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교육 참여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홍보 방법으로는 관할 지방자치기관의 지침,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안내 등 공공기관을 통한 홍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기관은 경기도가, 운영기관은 2021년 초 출범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영기관은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 인증기관 심사,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본래 목적인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같이 녹색소비 활동 단체 및 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육 및 정보제공, 지도자 훈련, 녹색소비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한 개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방안으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와 성과달성 평가를 통해 녹색제품 사용기관의 인증...



도입, 녹색경영, 녹색교육, 녹색구매, 이해관계자 대응을 평가항목으로 3등급의 인증등급을 설정해 인증서와 환관 제공, '경기도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시행을 위한 규정 삽입 및 검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운영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3차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및 위원회 운영방안 담은 근거 조례 마련... 설립 '탄력' 전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핵심 정책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마련됐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과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근거 조례까지 의결됨에 따라 북부분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목표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에는 북부분원 시설에 대한 정의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규정 조례유효기간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북부분원은 효율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 '의원공동 집무공간', '민원응대 공간', '영상회의실', '그밖에 북부청사 내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조례를 바탕으로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 및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분원의 명칭과 규모, 관련 시설 설치,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원격회의시스템 등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방안, 북부분원 설치 및 기능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로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위원장을 맡은 문경희 부의장을 중심으로 도의원과 학계인사 및 변호사 등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 주요시설의 규모검토 및 비용추계 등을 진행 중이다. 장현국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에 경기남북부 균형발전과 의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주

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희 부의장은 "근거조례까지 마련된 만큼 새해에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조례안을 발의한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정근/기자



이탄희 의원,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 입법 착수

1탄, 검사임용개혁법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은 지금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1/2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수사를 중심에 두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맞춰 각각의 검사 역할도

수사 중심에서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 조직문화도 상명하복 문화에서 독립문제의 연합제 형태에 어울리는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경험과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립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에서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별하는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

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는 2026년부터 법관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1/2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합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황명선 논산시장, "충남도-15개시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욱 희망찬 충남의 내일 만들 것"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16일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 7기 3차연도 제2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주시 시장, 군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 협의회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각 시·군별 건의사항 및 현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난 1년 간 전국시군구협의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성과 등을 소개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올 한 해 우리는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자치분권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뜻 깊은 해였다"며 "이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한 결과"고 말했다. 이어 개최된 충남지방정부회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주제로 시·군 현장점검 결산, 주요현안 보고 등에 이어 교통문화확산을 위한 도·시군·사회단체 간 업무협약, 도내 건설업체 건설수주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KBS충남방송총국 조속 설립 촉구 공동



건의문을 통해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확립하고 재난·재해 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에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은 충남혁신도시시정, 농어민수당지급, 코로나

19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연대와 협력의 힘을 열심히 보여주며 자치분권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며 "그 동안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주신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과 시장, 군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황진택 시의원,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 제기

황진택 시의원, 안성시의 소극적인 코로나19 대응 행정 지적

경기도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2020년 12월 18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자로 나서 안성시의 소극적인 코로나19 대응 행정을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시행과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신규 피해지원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PCR검사, 신속PCR검사, 타액PCR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전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추진을 안성시에 제안했다. 특히 민감도 92%, 특이도 100%의 정확도를 가지면서도 검체의 자가채취가 가능한 기존 PCR검사 대비 인력과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타액PCR검사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정책으로 전 시민에게 주기적인 진단검사가 시행되면 거리두기 상향 단계 적용 배제의 명분이 생기고 신속한 백신접종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또한 독감백신과 마찬가지로 증상자, 감염자는 접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으로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도 시민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인근 여주시가 전 시민 무료 진단검사를 목표로 공격적인 진단검사 정책을 펼쳐 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긴급주재 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PCR검사' 시범도시로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안성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진단검사 관련 보건소 검사인력이 일일 5명인 점과 최대 가용 검사인력이 40명에 그치는 점, 지난 16일 기준 누적 검사건수가 8천58건에 그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 시민이 주기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자신이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를 언제 어디서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확진자수는 무의미하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무료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진단검사

정책만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21년 본 예산안에 코로나19 피해시민을 위한 신규 사업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학부모,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 마련 및 시행을 요구했다. 실제 다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피해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는데 반해 안성시가 제출한 '2021년 본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현황에는 안성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 지원사업 추진 예산이 전무하다. 황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백억 짜리 신규사업은 꺼리낌 없이 추진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신규 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0원'이라니 부끄럽고 한심스럽다"며 "지금 안성시가 시민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행정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시행과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시의회
YONGIN CITY COUNCIL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페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자족시설용지 입주기업과 간담회 가져

(주)에이스엔, (주)SMK,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자와 발전방향 논의

의왕시는 지난 14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의왕고천지구 자족시설' 내 입주 예정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9월 의왕고천지구 자족시설용지 기업유치사업 공모 결과 최종 선정된 (주)에이스엔, (주)SMK 및 베셀에어로스페이스 등 3개 기업 대표자들을 만나 기업 발전방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베셀에어로스페이스 김지봉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선두주자에 서있는 첨단기업으로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왕시의 주축기업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주)SMK 김도형 대표는 "잠재력 있는 스타

트업과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R&D 허브를 구축해 시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에이스엔 송희남 대표는 "첨단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제조 연구하는 회사로서 친환경 도시인 의왕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의왕시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업과 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 6월 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기업유치사업 추진 대상자를 선정했



으며 의왕초평지구 내에 조성되는 의왕시 최대 문화복합형 첨단지식산업센터에는 600여개의 유망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의왕초평지구·의왕고천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로 자족도시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용/기자

포천시,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도서관 활성화, 도 중점사업 참여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코로나19 대응 도서관 시책 등 4개 항목 8개 세부 지표에 대한 심사로 진행됐다.

포천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선단도서관 건립과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영북도서관 만화·웹툰 전용 장서열람환경 조성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방형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코로나19 대응 도서 예약대출,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발송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내년에는 선단도서관 개관으로 7개의 공공도서관이 권역별로 운영되며 도서관이 시민 소중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

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더욱 분발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2020년 부천시민이 사랑한 만화를 소개한다

부천시립도서관 베스트 만화 TOP 10 선정

부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2020년 한 해 동안 일반, 아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 각 10권을 베스트 만화 도서로 선정했다.

일반 만화 분야에서는 작년에 이어 '여탕보고서', '농지마 정신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대출 도서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가 순위에 올라 코로나19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극한겨울', '밥 먹고 갈래요?'가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 아동 만화 분야에서는 '설민석의 세계사·한국사 대모험', '영웅이 탐정', '쿠키런 시리즈' 등의 도서가 꾸준히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학, 지리, 한자를 주제로 한 학습 만화와 생활 상식 등을 다룬 만화가 순위에 올랐다.

이번에 새롭게 순위에 오른 '귀신 선생님과 오싹오싹 귀신 학교'는 '2020년 부천의 책' 만화 부문에 선정된 남동운 작가의 만화다.

2020년 부천시립도서관 베스트 만화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은 부천시립도서관에서 빌려 볼 수 있다.

이동원/기자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한다"

수원시, 미세먼지 관련 정보 알려주는 영상 제작...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총 4번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수원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해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홍보 영상은 진행자 2명이 환경관리원, 통장 등 수원시민과 인터뷰하면서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된다. 차량 등급 조회,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총 4번 이뤄지며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올바른 환기 방법, 호흡기관에 좋은 음식 등 생활 정보도 알려준다. 홍보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된다.

지난 7일과 14일에 1·2편 영상이 게시됐고 12월 21일 3편이 게시될 예정이다.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시흥시, 2020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 확보

시흥시가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6,0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올해는 지자체 84곳 105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운영 실적, 우수시책 및 발전 가능성 등의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 평가했으며 시흥시는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특히 시흥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소통 증대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강화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만187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해 시민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온라인 투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과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과, 지역현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추진한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얻어낸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흥의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

기간: 2020. 8. 20.(목) ~ 9. 15.(화)

대상: 시흥시민 누구나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위한 온라인 투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juminy.siehung.go.kr>
 → 왼쪽 하단 '투표' 클릭

시 단위(3개 투표) → 동 지역(3개 투표) → 완료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juminy.siehung.go.kr>
 → 오른쪽 하단 '온라인 설문조사' 클릭

12개 설문문항 시민의견 수렴

문의사항: 시흥시청 주민자치과 ☎310-3190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 극복 다함께 챌린지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 코로나 기획연주로 국민응원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응원창작곡을 만들어 발표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 제 9주년 정기연주회에서는 한국가곡 100주년 기획연주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챌린지 응원 창작곡을 발표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날 연주회에는 김성기 가평군수와 김경호 경기도의원,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연주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의 관람인원으로 제한하고 좌석 띄어 앉기 등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준수했으며 연주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주하는 열정을 보였다. 특히 연주자와 관객들은 개인소독은 물론 무대와 관람석 등 공연장내 소독으로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프르고컴에서 협찬한 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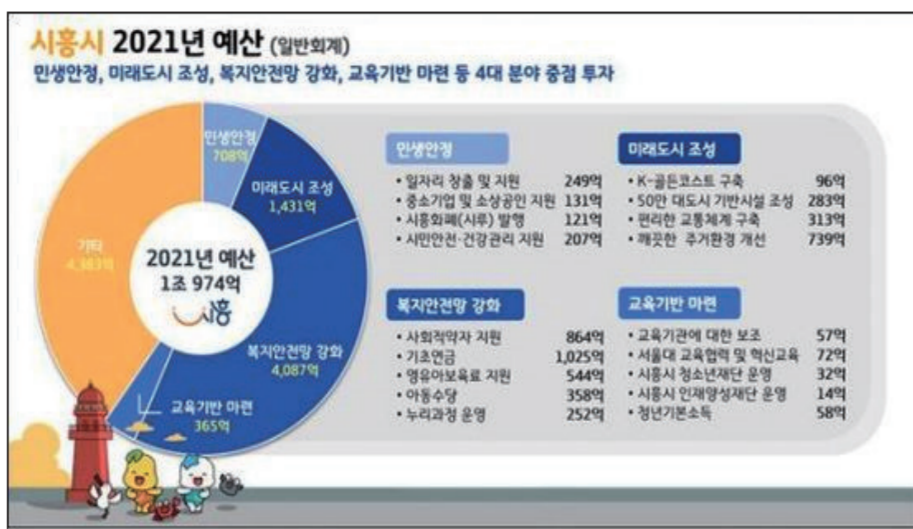
러스를 차단하는 퓨리스틱을 공연장내 50여개를 설치했다. 이산화염소가 주원료인 퓨리스틱 제품은, 공간 살균 소독뿐 아니라 농·축산물에도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식품의약청 승인을 받고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 합창단 관계자는 "공연장 내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히고 "개인소독은 물론 관객들 모두가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어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최정부/기자

시흥시, 2021년도 예산 1조 5527억원 확정

‘민생안정, 미래도시 조성, 복지안전망 강화, 교육기반 마련’에 중점



2021년도 시흥시 예산이 지난 12월 16일 시흥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 5,527 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민생안정, 미래도시 조성, 복지안전망 강화, 교육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으며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회복 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5억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11억원 등 249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121억원 시흥형 중소기업 육성 10억원 등 25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0억원 등 101억원을 편성했으며 시민건강 관리 지원에 출산 장려금 지원 14억원 등 106억원을 편성했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K-골드코스트 구축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37억원 해변노을 공원 조성 10억원

등 96억원을 편성했으며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61억원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20억원 등 283억원을 편성했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노선 운영 지원 86억원 등 313억원을 편성했으며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불양저수지 수변 데크 조성 39억원 등 739억원을 편성했다. 더욱더 견고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36억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21억원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 14억원 등 사회적약자 864억원, 노인 1,229억원, 아동 및 여성

지원에 1,994억원 등 총 4,087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대 교육협력 및 혁신교육 사업 73억원 인재양성 및 청소년재단 운영과 한반위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출연금 47억원 등 교육·청년·청소년 지원에 365억원을 편성했다. 임팩트 시흥시장은 “2021년 예산은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넘어 향후 미래 대비 전략사업 육성과 시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읽고 싶은 새 책, 지역 서점에서 바로 빌려 보세요

2021년 부천시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시행

부천시는 1월 4일부터 2021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새 책을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0년에는 2만 6천여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2017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다. 2020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서관 휴관에도 희망도서를 빌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천시립도서관 통합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까운 동네서점 9개소에서 원하는 새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원하는 도서가 웹툰, 수험서 잡지 등이거나 시립도서관에서 동일한 도서를 14권 이상 소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이 먼저 읽고 반납한 도서는 도서관에서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반려동물 연령별 교육방법, 올해 마지막 21테이서 제대로 알아보자

반려동물 교육 관련 질의응답, 사료 기부 이벤트, 유기견 공개 입양 등 진행

공개 입양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방송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생방송은 12월 21일 오후 8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경기도 유행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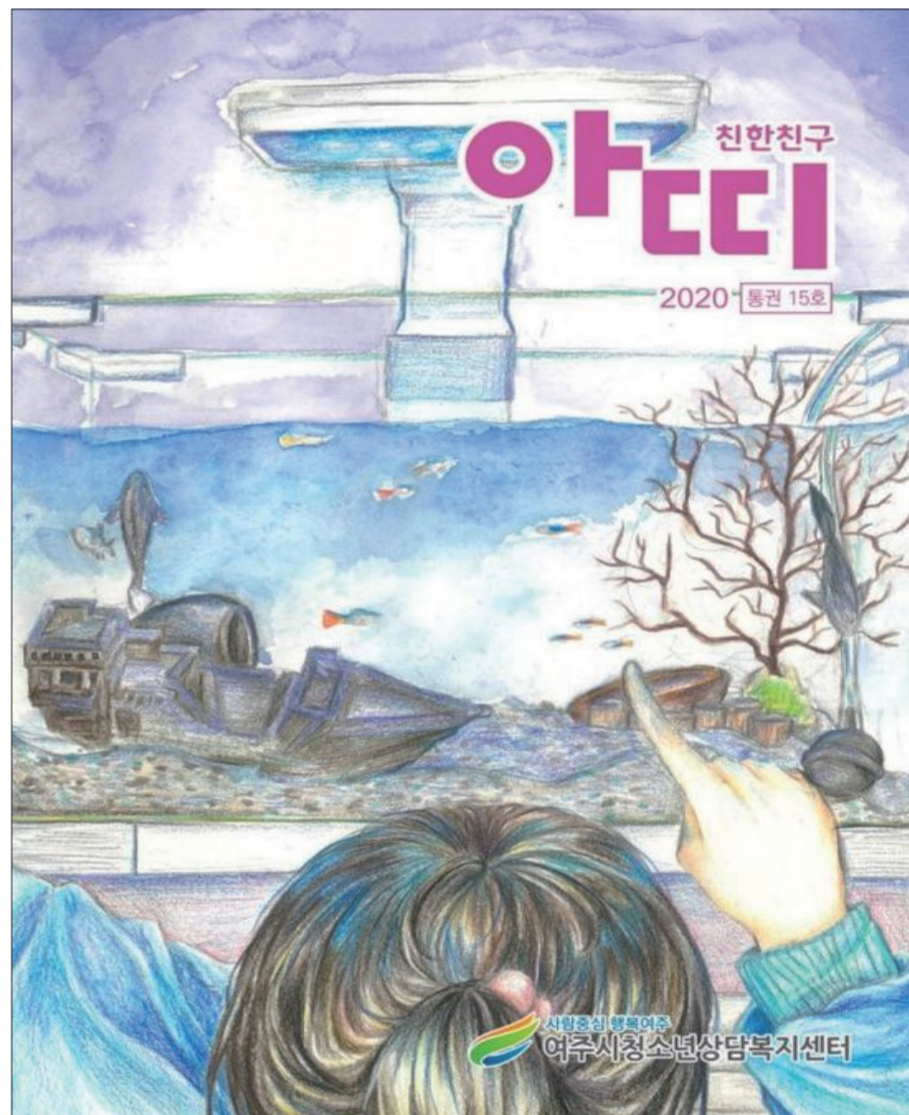
여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정보지 '아띠 15호' 발간

여주시 청소년 기자단의 열정과 노력으로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문화와 성장을 '아띠'에 담아

여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2월 중순, 청소년문화정보지 '아띠 15호'를 발간했다.

청소년 문화정보지 '아띠'는 청소년기자단이 직접 또래 청소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취재해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의 온택트 문화에 적합한 정보를 기획하고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 여주시 청소년기자단은 올해 1월, 제8기가 출범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현재 EBS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기자도 직접 초빙해 기사작성법의 기초에 대해 배우고 언론 분야의 생생한 직업 경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고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3년 동안 여주시청소년기자단 활동을 해 온 한 학생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여주시 청소년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한 학생은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 그 중에서도 같은 상황에 대해 나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기자단 활동이 나의 꿈을 이루아가는 바탕이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며 발간 소감을 밝혔다.



했다. 현재 여주시에서는 관내 청소년 18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기자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기획회의를 하며 단원이 작성한 기사를 교정, 교열 및 피드백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

을 통해 올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정보지가 발간되어 각 학교와 도서관 및 관계기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이성욱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올해의 히포시리더' 수상

앞서가는 오피니언 리더로 성평등 문화 확산 공로 인정 받아



안승남 구리시장이 ㈜여성신문과 W경제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2020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 대상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로 '올해의 히포시리더'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히포시리더는 유엔여성성이 2013년부터 시작한 히포시 캠페인을 실천하고자 2017년 신설됐으며 매년 성평등을 실천하고 여성의 성장을 독려하며 남녀 화합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이끄는 남성 리더를 선정해 왔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로 유명한 안승남 시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안전 여성 만족 여성 행복 구리시'를 위한 여성이 행복한 정책 추진,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아왔다. 또한 2019년 경기도 유일의 여성 부시장을 발탁하고 주요 핵심부서의 여성팀장 임용 등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정책을 펴는 한편 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여성의 성장을 지원하

고 남녀 화합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이끄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여성정책과 연계한 업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적극 행정 및 여성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행복센터' 건립 추진 행복구리 그루터기 세일센터 설치·운영 결혼 이주 여성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소통융합 공간인 '다가온' 설치·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소통 행정 추진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구리' 추진 구리시 비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시 구상 등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요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까지 이어졌다. 박운평 구리시노조위원장은 “안승남 시장의 히

김영근기자

태안군, 코로나19 화훼산업 침체 속 '호접란 2만 3천분' 미국 수출

18일 태안 '삼미원' 호접란, 미국 캘리포니아 수출길 올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화훼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 호접란이 미국 수출길에 올라 화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삼미원 영농조합법인'의 호접란 2만 3천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수출길에 올랐다. 오랜 기간 한국 난초류는 뿌리를 세척한 상태로만 미국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국 도착 후 활착률이 저하돼, 화분 상태로 미국에 수출되는 대만산과 비교해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으나, 지난해 '삼미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화분 상태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미원'은 까다로운 미국 검역기

준 승인을 받은 온실에서 호접란을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2640㎡ 시설을 확장해 수출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장기수송 중 호접란의 선도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통한 박스제작 비료량 및 수분 조절 호르몬 처리 등의 품질유지 기술을 새로 도입해 경쟁력을 높였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미국 농무부 허가시설 확장에 필

요한 장비 및 물품, 수출 규격품 생산을 위한 기술 등을 지원했다. 박진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세계 화훼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내년에는 5만 분을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며 러시아 등 새로운 수출 판로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부산시, 관급공사 현장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핀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의 방역실태를 오늘부터 선제적으로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른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부산지역 내 건설 현장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히 추진하며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가 점검대상이다. 10억 이상 공사장 68곳은 부산시 건설행정과에서 3개 반 10명의 인원을 투입해 직접 점검한다. 10억 미만의 공사장은 시 관제부서 구·군, 공사·공단 등 발주기관에서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며 점검 기간은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다. 점검내용은 건설 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사항 등이다.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여

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현장 비치 여부, 현장근로자 출입 시 체온측정 등 건강상태 확인,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여부, 의심환자·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지구인 건설 현장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모범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미준수 현장은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강력히 지도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취약지구인 건설 현장의 방역실태를 긴급 점검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영민기자



영광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현장점검 강화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영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2인 1조로 유흥·단란업소, 일반·휴게음식점 880개소와 이·미용업소, 목욕장 192개소 등 총 107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일반·휴게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단란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 중단 목욕장·이용·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목욕장의 경우에는 음식섭취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업소에 출입자 명



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사항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을 속히 이겨내기 위해 영광군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경주시, 안강·강동지역 방역수칙 준수 집중점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식당·카페 등지 점검, 시민 협조 당부...

경주시는 안강읍과 강동면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합동점검반 14개 반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 16일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79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에 나섰다. 오는 28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집중점검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등의 방역수칙 실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주시는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행사에 대비해 28일까지 지도점검 상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전라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소' 강력 처분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12개소 과태료·고발 조치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이 소재한 유흥가 밀집지역 등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과 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총 2천 226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 밤 10시 이후 영업 4건을 비롯 음식점·카페 밤 10시 이후 내부영업 운영 6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 적발됐으며

전라남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 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중단, 음식점·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취약분야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느슨해진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김천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 점검, 마지막까지 최선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전달회의 개최

김천시는 지난 16일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전달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부서장 및 각 부서 팀장이 참석해 하반기 신속집행 현황과 연도말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예산 집행기간이 연말까지 2주간 남은 상황에서 신속집행 목표율 88%, 소비·투자부분 100% 집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천시는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위축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의 확장적 대응에 노력해 왔으며 지출수요 재발굴과 이월사업 연내 집행 최대화, 선금·기성금 특례활용 집행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광 부시장은 “코로나19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증진 도모를 위해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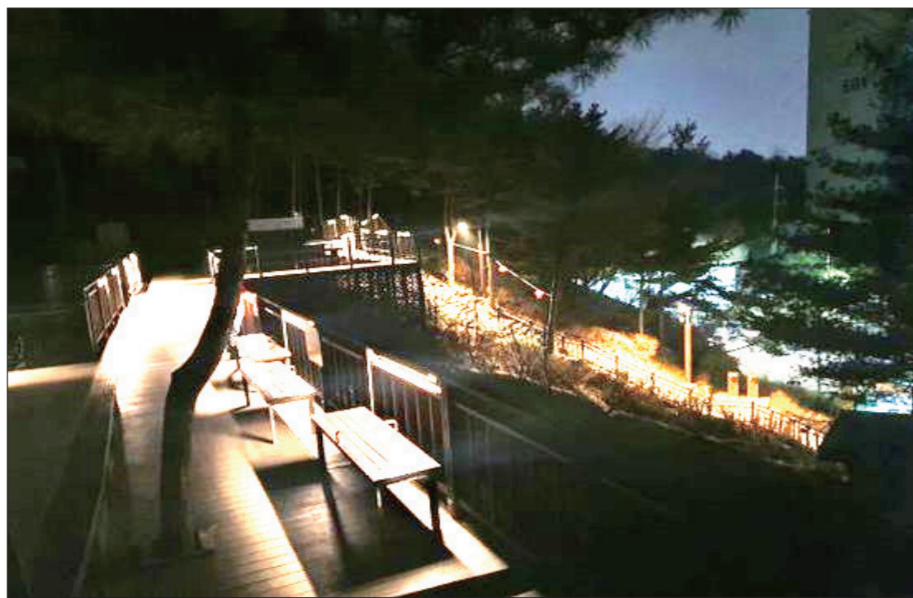
화성 힐스테이트 봉담

아름다운 호암늘솔길 밤에도 안전하게 즐겨요

금천구, 호암늘솔길 총 1.2km 전 구간 야간조명 설치완료

금천구는 주민들이 야간에도 무장애숲길 데크로드를 거닐 수 있게 호암늘솔길 전 구간에 야간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호암늘솔길은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보행약자들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와 같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호암산 자락에 조성된 무장애숲길이다.구는 앞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호암늘솔길 총 1.2km 중 300m 구간에 야간조명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이번에 야간조명을 새로 설치한 구간은 '잣나무산림욕장~호암1터널 상부' 잔여 900m구간이다.이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은 구의 대표적 힐링 명소인 호암늘솔길 전 구간을 야간에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아울러 구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교



란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 맞는 조도와 점등시간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이 주·야간 관계없이 아름다운 호암늘솔길의 자연을 만끽하며 심신의 위

안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린SOC사업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녹색도시 금천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강동에만 있는 이색 버스승차대, 2곳에 설치

중앙보훈병원역 3번 출구, 강동아트센터.강동경희대병원 후문 정류소

강동구가 중앙보훈병원역 3번 출구와 강동아트센터.강동경희대병원 후문 버스정류소에 장소별 특색을 입힌 '디자인 버스승차대'를 설치했다.지난 2019년 말 진행된 '버스승차대 디자인 공모'에서 수상한 디자인들을 실제 적용해 완성한 버스승차대다.중앙보훈병원역 3번 출구 정류소에는 열 일자선의 완만한 산세를 등고선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한 작품 'Contour Line'을 구현해 차별화된 버스승차대를 구현했다.

또한, 강동아트센터.강동경희대병원 후문 정류소에는 강동아트센터의 아트 중 A에서 도출한 삼각형을 포인트로 하는 수상작 'Green Art Bus Shelter'를 반영했다.강동구는 승차대별 각기 다른 매력의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증진하는 동시에,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도 마련했다.

중앙보훈병원역 승차대에는 스마



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와 버스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안내단말기를, 강동아트센터 승차대에는 한겨울에도 따뜻한 온열의자와 버스 정보 안내를 겸하는 미디어 보드를 설치했다.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디자인 버스승차대가 지역이 지닌 정체성과 도시경

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고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버스정류소 예코셀터, 강동형 스마트워터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강동구에는 "최우수" 새마을문고가 있다

지역사회 독서분위기 조성 등 새마을문고 활동실적평가 결과 축하

강동구가 대통령기 제40회 국민독서경진 중앙대회 종합평가에서 새마을문고 강동구지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대통령기 제40회 국민독서경진대회'의 새마을문고 강동구지부 시군구 종합평가 "최우수" 기록은 대회 개최 이후 처음이다.독서진흥을 위한 국민독서경진대회 종합평가부문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경진대상은 시도지부, 시군구지부이다.새마을문고 강동구지부는 독서문화실현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온



택트 방식으로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며 강동구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또한, 지난해 취임한 새마을문고 강동구지부 박경란 회장은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함께 대회수상작을 엮어 문집 '모종'을 처음으로 발간하는 등 지역사회의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이

정훈 강동구청장은 수상기념 차담회에서 "강동구 새마을문고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전으로 끊임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시군구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마을문고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은평구, '우리동네 보육반장 온라인 사업보고회' 실시

출산가정과 영유아 부모들에게 문자 통해 접속링크주소 발송

은평구는 2020년 출산가정과 영유아 가정을 초청해 12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온라인 사업보고회 및 초청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보고회는 2020년 은평구의 영유아 부모들에게 다양한 육아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 우리동네 보육반장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행복한 육아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정리 전문가를 초청해 삶의 공간, 관계,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출산가정과 영유아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육아 정보를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상담을 지원해 은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해가는데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은평구는 6명의 보육반장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해 부모 자조모임, 부모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카페, 밴드, 앱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영유아 부모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행복한 육아 공간 만들기' 초청 강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분주했던 일상의 자리를 정돈하는 기술을 안내해, 육아로 지쳐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출산가정과 영유아 부모들에게 문자를 통해 링크주소를 발송하고 해당 시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은평구 영유아 가정의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0. 은평구 우리동네 보육반장 온라인 사업보고회

2020. 은평구 우리동네 보육반장 온라인 사업보고회 및 초청강연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0. 12. 22.(화) 10:00
 방법 :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ZOOM)
 내용 :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소개 및 초청강연

초청강연 - '행복한 육아 공간 만들기'

시간	내용
09:50-10:00	환영 및 참가 확인
10:00-10:05	인사말
10:05-10:20	우리동네 보육반장 소개 및 사업보고
10:20-11:30	초청강연 '행복한 육아 공간 만들기'
11:30-	폐회

주최: 은평구 육아정책지원센터

ZOOM 접속 아이디 : 869 1117 6784
 ZOOM 접속 암호 : 588379
 URL : <https://us02web.zoom.us/j/86911176784?pwd=LUJhbnRlZGZlc0pCZWVZdW9lbnRkZS00>

수돗물 대시민 신뢰회복 프로세스 공촌 주요 급수권역 학교 159개소 수질검사결과 "적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촌 주요 급수권역의 학교 159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모든 학교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159개소 학교 중 141개 학교에서 병원균의 존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잔류염소, 배관 오염 및 노

후 정도를 알 수 있는 탁도, pH, 철, 아연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역별 중심지점 18개 학교에 대해서는 먹는물수질검사 60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수질검사 결과 평균 탁도 0.07NTU, 잔류염소 0.43mg/L, 아연 0.004mg/L 등 6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 홈페이지 및

각 학교를 통해 알 수 있다.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를 활용해 공촌급수권역뿐만 아니라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해 학생·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 및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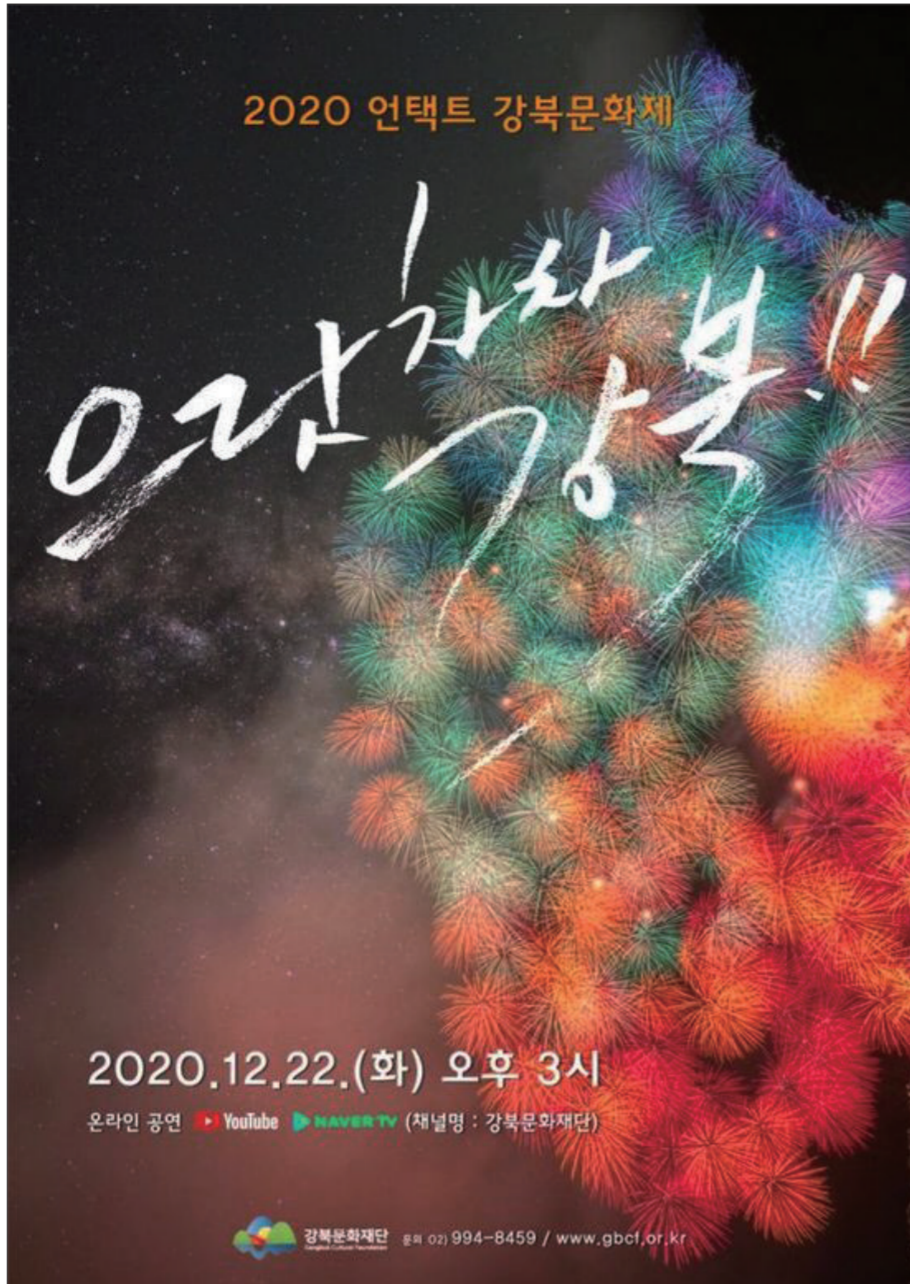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 2020 강북문화제 '으랏차차 강북' 비대면 개최

12월 10일 오후 3시 네이버TV,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강북문화재단이 2020 언택트 강북문화제 '으랏차차 강북' 공연을 오는 12월 22일 오후 3시에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한다. 재단은 지난 10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연장이 폐쇄되면서 생방송에서 녹화중계로 형식을 바꿔 공연을 운영한다. 강북문화제는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생활문화예술인이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공연이 어려워지자 집콕 생활로 지친 주민과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적어진 지역 예술인을 위해 언택트 콘서트 형식으로 강북문화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공연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네이버 TV와 유튜브 '강북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트로트, 시낭송, 난타, 성악, 어쿠스틱 밴드, 쇼하이어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참여한다. 강북문화재단은 "집콕으로 지친 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자리가 작게나마 지역예술인과 강북주민들에게 위로와 안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금천구, 21일부터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 시행

여권정보증명서 등 6종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금천구는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21일부터 여권사실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발급 등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방문기관에 함께 제시하여 신분증으로 활용"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20. 12. 21.부터 발급되는 여권)

여권정보증명서란?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로의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21년 중 온라인 발급 추진)

모든 방문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가능한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볼 것을 권장
- * 12개 금융기관(신한, 부산, 광주, 전북, 대구,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국민, 경남, 우정사업본부)에서 '20.12.28. 부터 서비스 예정'

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며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여권행정서비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여권업무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민원응대 및 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최종환 파주시장 회전교차로 발열의자 설치 현장 점검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7일 조리읍 오산2교차로와 문산역 앞 버스정류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파주시는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진입차량의 속도를 줄여 주민의 교통안전에 도모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연차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내에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먼저 최종환 시장은 올해 설치한 조리읍 오산2교차로를 방문해 지역주민과 오산인쇄산업단지 관계자들을 만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어서 발열의자를 설치한 문산역 문산역 버스정류장에 방문해 이용시민들과 직접 발열의자 효과를 체험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교통분야에 다양한 선진 교통시설물을 도입하고 재정비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확보하고 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관악의 민주, 평화, 인권을 말하고 노래하다 온라인 역사콘서트 'K-CONCERT' 개최

민주, 평화, 인권에 대한 역사강연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 선보여

관악구가 오는 19일 관악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관악'을 통해 '역사콘서트 K-CONCERT'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관악의 민주·평화·인권을 말하고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지역주민에게 역사외식 고취와 흥미로운 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관악구와 관악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마을관광사업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가 함께 추진하는 합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루할 수 있는 역사 강연에 흥겨운 문화공연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12월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

간 동안 관악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관악'에서 생중계되며 한홍구 작가의 역사특강과 인디밴드 레드로우, 클래식앙상블 아다지오, 가수 새실, 테너 조준, 4명의 음악공인이 펼쳐진다.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그 현장에 함께 했던 관악 민주주의의 역사가 흥겨운 문화공연과 더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희 구청장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흥겨운 문화공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새로운 언택트 문화공연 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www.yyg.go.kr
영양군 YEONGYANG-GUN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적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밍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츠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산간고랭지 영양예실천사과·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피부미인 영양복숭아·저농약인종 영양포도·해발 1,219m 영양수박·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체스·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버섯·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고랭지 무공해 영양잡곡·뽕으로 기른 영양임대배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altaslow

영양군농특산물

청송군,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분석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경북도내 시·군 중 유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9천만원 확보

청송군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청송군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 수입비율이 전년대비 0.5% 증가한 3.77%로 유형평균 3.3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방세 징수율도

전년대비 2.12% 증가한 97.08%로 유형평균 95.98%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정 효율성 분야는 그 결과를 보통교부세 배분과 직접 연계하는 유의미한 지표이다. 또한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전년도 4.06%에서 2.92%로 감소, 공기 업무채비율도 전년도 161.02%에서 0%로 감소해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로써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9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의 인구구조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이룬 성과"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안용/기자

구미시푸드플랜의 이해와 전망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 개최

구미시푸드플랜 계획 및 추진현황, 타 지역 우수사례 발표

구미시는 18일 오후 2시 소비자, 학교급식, 복지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미푸드플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미시푸드플랜의 이해와 전망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온라인 워크숍은 유튜브에서 "식생활교육 구미네트워크" 검색 후 접속하거나 <https://youtu.be/RvynY3qSUG0> 로 링크접속을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장세용 구미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먹거리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전략이다.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5년에 걸쳐 국비 118억원을 포함해 총 240억원 확보해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전

략인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먹거리 관련 정책·예산·조례를 관장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지역 먹거리 실물경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통합물류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급식센터 건립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핵심사업으로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복지·공단급식 등 구미먹거리 공공조달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조달 혁신의 출발점으로 지역 수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소비자, 학교급식, 복지급식 관계자에 대한 푸드플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미시푸드플랜의 이해와 전망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공공급식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기에 꼭 참여해 많은 의견과 관심을" 당부 했다.

정동호/기자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의미있는 '유종의 미' 거둬

총 2,218명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참여, 국제대회 선수 선발·발탁 등 다양한 성과 거둬

포항시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2020년 포항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사업을 최근에 마무리하며 코로나시기에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없던 시민들에게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선사하며 육체적 활동 요구를 충족시키고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 해양스포츠아카데미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해양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포항시체육회 해양스포츠팀이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매년 3월에 개강해 당기요트, 윈드서핑, 서핑 등의 강습과 체험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정원의 50%를 축소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하던 인근 대학의 해양관련 정규수업을 포함해 1,08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인 '해양레포트 집중육성학교'는 474명, '세일링 동아리 육성교실'은 658명 등 총 2,218명이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한 '세일링 동아리 육성교실'의 경우에는 종목 특성상 개인 활동이 어려운 해양스포츠 동호인들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일조했고 그 결과 국제대회인 '2021 산야 비치아시아게임'에 클럽소속의 '배혜린' 학생이 당기요트 종목 파견 선수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국제대회에는 포항카이트보딩협회



소속 '조수철' 선수와 포항시서핑협회 소속의 '조현성' 선수가 각각 카이트보드 종목과 서핑종목 선수로 발탁되어 해양도시 포항의 진면목을 보여 줬다. 포항시 조철호 해양산업과장은 "예전에 포항은 타 지자체에 비해 해양스포츠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체육회 해양스포츠 전담팀 운

영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현재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해양레저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호/기자

안동 임청각 앞 기차운행 중단. 복원사업 박차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기차운행 중단 기념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17일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임청각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기차운행 중단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수, 이항중 등 국무령 이상룡의 종손 및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등 각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임청각에 대한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보여 줬다. 행사는 임청각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

새기고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중앙선 철로 폐선과 기차운행 중단을 기념하기 위해 임청각 종손의 고유제를 시작으로 소감문 낭독, 밤음뱃 철거 퍼포먼스, 만세삼창 및 독립군가 노래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안동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3대에 거쳐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거

듭나게 되고 국난극복의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청각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임청각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청각 복원사업은 경상북도가 문화재청·안동시와 함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280억원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와 주변 정비,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등이 추진된다.

김영호/대기자

권영진 시장, 특별 방역 대책 기간 '先 방역, 後 일상 업무 체제'로 전환 지시

1주일 단위로 방역상황 평가해 탄력적 운영, 부서별 관련 기관 점검 철저 지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이뤄지는 2주 기간은 대구 시정의 우선순위는 방역이다. 그에 맞춰 업무를 조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시기 바란다" 17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각 실국 및 산하기관별 또 마련한 코로나19 대책 발표를 보고 받은 후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방역에 쏟아야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면 쉽게 기세를 꺾기 어려울 것 같다. 올 초 대구에서 대유행 시 시민들이 이동을 80%까지 줄이며 스스로 통제해 안정화를 이뤄냈지만 지금 수도권은 이동이 20~25% 밖에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확산이 지역으로 연동화 되는 건 시간문제다. 지난 2~3월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며 방역 대책의 고삐를 다시 한번 바짝 죄야하는 시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대구만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방역 단계를 올리지 않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구성원 및 가족들이 솔선수범해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민간 차원으로 확산하면서 권고가 실제로는 의무적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특히 앞서 대구시가 발표한 특별 방역 대책 가운데 10인 이상의 음식물 섭취 모임·행사는 취소하고 집에서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방역관리자가 되어 이러한 지침을 시민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거듭 주문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공동체적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유에 대한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준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해 4주에 한 번씩 전수 조사하던 것을 2주로 당겨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일 출퇴근 하는 종사자를 통한 감염에 대비해 1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복지시설, 물류센터, 컨택센터 등 집단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마 올 겨울이 참 어려운 겨울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지난 2~3월 같은 겨울이 되도록 만들어서 안된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겨울을 나기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박류석/대기자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상복 터졌다.

전국 농촌진흥기관 최우수 기관상, 농업인교육 우수기관, 도평가 우수팀 선정 등

의성군은 의성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2월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0년 전국 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작물 디지털농업 전환을 통한 기술 현장확산과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미래농업인육성 및 농업 재해대응 등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기술보급사업 종합만족도, 현장애로기술 해결 맞춤형 기술 확산지원, 미래농업인 육성실적 등 총 11개 항목을

농촌진흥청에서 종합평가 했으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의성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또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신규농업인교육 평가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했고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지도팀 경진대회에서 스마트농업팀이 출전해 '우수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의성군농업기술센터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농촌진흥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의성군의 농업인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넘치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동호/기자



부산시, 글로벌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허브로 도약 창원시, 돌섬에 '최치원 전설' 깃든 '돼야지 소망계단'만들었다

부산시는 12월 18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해양 특화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및 생태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최종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하며 부산형 도심항공모빌리티 기반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드론산업 기반구축' 정부 공모사업을 유지해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에 드론 활용 업무를 도입하고 해외에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들을 창출해 무인기산업 육성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2018년에는 '드론산업

부산형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및 생태계 육성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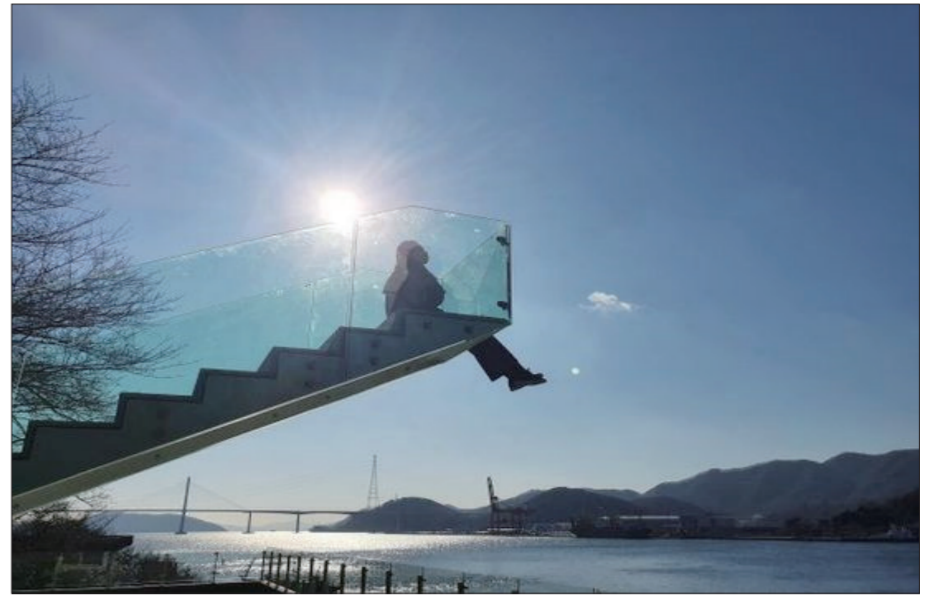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 드론산업육성 허브센터를 동아대학교에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국내 무인항공기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11월에는 여의도에서 UAM 시연 행사를 선보인 바 있으며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시는 국내외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만의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유치를 위해 산·학·연 등과 협력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부산시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상공역을 활용해 해양 환경에서 운항 신뢰성을 확보한 특화된 UAM 플랫폼을 개발하고 해운대-이기대 구간을 사업화 실증구간으로 설정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 기업의 사업다각화, 업종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해 부산을 UAM 산업생태계 허브 도시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해상을 따라 물류, 교통 등 생활권이 형성돼 있고 이를 활용한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사업은 수요와 안전 측면에서 가장 성공하기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관광 및 지능정보서비스 산업플랫폼과 연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증함으로써 글로벌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 선도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건물 옥상에 높이 3.8m 계단식 구조물 설치해 '사진 맛집' 탄생

마산 앞바다의 작지만 아름다운 섬 돌섬에 '사진 맛집'이 탄생했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돌섬 해상유원지에 '돼야지 소망계단'을 설치했으며 시민들은 오는 2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돌섬유원지 내 2층짜리 건물인 실내캡터 옥상에 자리한 '돼야지 소망계단'은 높이 3.8m로 꼭대기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계단식 구조물이다. 돌섬 내 볼거리를 늘리기 위해 조성됐다. 시는 이 계단에 올라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뜻에서 '돼야지 소망계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돼야지'는 돌섬의 상징인 '돼지'의 방언 '돼야지'와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담은 '되어야지'를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계단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꼭대기에 서서 손을 뻗으면 태양을 만지는 듯 아찔한 연출도 가능하다.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마창대교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사진 맛집'으로 더할 나위 없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계단 양옆으로 투명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 아래에 넓은 안전



망도 깔았다. '돼야지 소망계단'이 있는 돌섬에는 돼지와 관련한 오랜 전설이 있다. 신라시대 때 돌섬에서 밤마다 돼지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고운 최치원이 섬에 활을 쏘자 소리가 잦아들었다. 이후 돌섬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 해 풍습이 이어졌는데, 후세에도 영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종종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시는 돌섬의 오랜 전설과 연계해 '돼야지 소망계단'을 소원이 이루어지는 계단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새해맞이 돼야지 소망계단 사진·영상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황규종 창원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소원이 넘쳐날 것이다.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는 돌섬 '돼야지 소망계단'에 올라 새해 소원을 빌고 고진감래의 마음으로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호기자

산청군 道 숲가꾸기사업 3년 연속 최우수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 등 보존·활용 앞장

산청군이 경남도가 실시한 '2020년 산림자원분야 시군평가'에서 3년 연속 숲가꾸기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18일 산청군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의 공익적 증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청군은 올해 적극적인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 300ha, 큰나무가꾸기 300ha, 어린나무가꾸기 140ha

풀베기 550ha, 덩굴제거 500ha 등 모두 1790ha의 숲가꾸기를 시행했다. 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통한 산림사업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산청군산림조합 역시 '2020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으로 91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산림 자원 육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건강한 숲을 조성해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이 더 많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가시없는 은나무 보급사업 등 새로운 산림소득지원사업, 산청군산림조합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체험행사, 칩 제거 및 수매 시범사업 추진, 2차 가공 산림바이오메스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산림자원 보존·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의 '선도산림경영단지' 기본계획 모델에 산청 모고산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상수리나무와 편백나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제재·톱밥·펠릿 공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사회적경제체와 함께 은나무, 산마늘 육성단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인용기자

거창군, 문화도시 온라인 퍼즐퀴즈 이벤트 실시

거창군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거창 문화도시 기획 및 활동가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퍼즐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거창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동당동당'에 참여한 문화 활동가들이 거창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를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당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려 했

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만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퍼즐퀴즈를 풀고 특정 글자를 순서대로 연결해 나오는 단어를 성명, 연락처, 주소와 함께 '거창군청 홈페이지→군민참여→퍼즐퀴즈 이벤트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군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도시 홍보 리플렛 및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당

첨자 발표는 오는 3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상준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퍼즐퀴즈 이벤트는 문화 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한 사업이라 더 의미가 있다"며 "군민들이 퀴즈 참여를 통해 거창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올 한해 사업 성과 빛났다.

가축전염병 예방, 영농기술지원단 운영 등 적극행정

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한해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2021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18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4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사업으로 영농기술지원단 운영 등 10여개 사업과 역점시책인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외 5개 사업

에 큰 성과를 남겼다. 주요성과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한 올 한해 철저한 방역으로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사전예방으로 청정함양 이미지에 일조를 했다. 특히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영농기술지원단 운영으로 경남도 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금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남겼다. 군수 공약사업인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사업, 소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부지확보 등에 애로가 있어 사업을 더욱 홍보해 더 많은 군민의견을 수렴한후 2021년 완료할 방침이다. 2021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80여억원이 증가한 548여억원으로 증가분은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금 상승에 따른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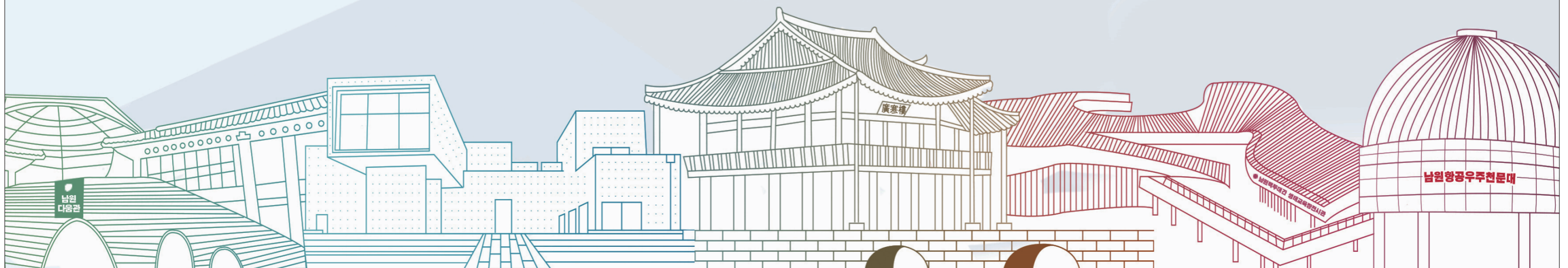
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에도 군정목표인 '성장농업'에 발맞추기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히 2020년에 부진했던 군수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센터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이규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에도 올해처럼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송인용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전북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품시장 육성 박차

코로나뉴딜 대응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판로지원 확대

전북도가 전통시장 국가 공모사업 2개 분야에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 명품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도는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지원사업 1개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2개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에 2개시장 등 총 5개 시장에 국비 63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5개 시장이 선정돼 국비 37억원을 확보했다.5개 전통시장은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자원과 연계해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특성화시장으로 조성한다.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는 상권르네상스 지원사업에 부안 상설시장이 선정돼 공유 플랫폼 및 이색거리 조성, 여행자 거점공간 등 5년간 80억원을 투입한다.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는 전주 모래내시장과 김제 전통시장이 선정돼 언택트 시스템 구축, 시장투어코스 개발 등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볼거리·먹거리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청년몰 지원

사업에 이산 북부시장은 신규조성, 김제 전통시장은 활성화 지원이 선정돼 청년상인 창업공간 제공 및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해 20여개소 청년상인이 창업을 계획하게 된다.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5개 시장이 선정돼 2개 시장에는 주차장을 신축한다.무주시장과 임실시장이 새롭게 주차장이 건립되고 전주 신중암시장·중앙상가 및 남원 용남시장은 무인시스템으로 개보수를 통해 상시 운영이 가능해져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향후, 전북도는 코로나뉴딜에 대응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비대면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상가 시범사업에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가 선정돼 스마트기술과 스마트도어 도입 등 완료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상인들의 인식향상과 스마트 상가 및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 등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전환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 쇼룸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온라인 판매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전북도는 무엇보다 안전한 장보기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로 코로나 확진자 제로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전통시장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책임감 있는 방역활동을 유도했으며 도내 76

남원수지·JJ테크, 희망을 나뉜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남원시가 함께하는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남원수지와 JJ테크에서 남원시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텐탈마스크 10만장을 기탁한 것이다.남원시 대산면 소재 마스크 제조사인JJ테크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남원수지와 함께 코로나 19로 지역 감염을 막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스크 후원에 동참했다.

JJ테크 대표 나종훈과 남원수지 대표 김종석은 "남원시가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대유행에 접어들어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두 기업이 함께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주민복지과장은 이날 물품전달식에 참여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과 관이 협력해 나눔과 복지가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함께 남원시 복지 발전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년 연속 공모 선정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6억6천 확보.신중년에게 많은 일자리 제공기대

남원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21개 사업이 선정돼 6억6천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1월 중에 참여자 4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하신 중년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시민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신중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직 신중년들이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참여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면서 행정·

이남출/기자



24시간 범죄 없는 안전도시 남원

남원시는 올해 50개 마을에 300대의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2020년 남원시에서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출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마을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앞으로도 남원시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군산 짬보선창, 도시재생으로 찾아온 변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년, 도시재생 본궤도에 올라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만3년을 맞아 본 궤도에 오르며 당초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3년째 접어든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은 군산시 중앙동 짬보선창부터 신영시장 일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5개년도 총 사업비 약 1,356억원으로 마중물 사업인 수협창고 리모델링 등 세부사업 262억원, 공기업 사업으로 LH 행복주택 건설사업 160억원, 부처간 사업 934억원이 진행되고 있다.

수협창고 기능이 상실돼 흉물스럽게 변한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하고 침체된 짬보선창의 활성화를 중요한 거점 시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짬보소리1899'는 군산 개항의 해인 지난 1899년부터 이국 짬보선창의 이야기를 담고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협업 사업으로 1층은 수제맥주 제조 시설 및 시음 판매장이 들어서게 되며 1월말 공사완료 예정이다.2층과 3층은 문화예술과와 협업으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2층 사무실에 6개의 스타트업기업이 입주해 각종 강연과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공동체인 '짬보선창변영회'에서는 수제 맥주를 만든 후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해 맥아박 에너지바를 만들어 지역 소득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맥아박에는 단백질과 섬유질,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맥아박 에너지바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보리, 쌀, 팥, 블루베리 등을 조합해 군산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시제품 제작과 연구, 전문가 컨설팅으로 에너지바 레시피 고착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11월 마을기업을 선정했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1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품평회를 거쳐 시중에 판매할 계획으로 지역 소득 창출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중금암동 신영시장 인근 구.화공공장 및 폐철도부지 8,754㎡에 올 3월 도시재생생울을 조성했다.가든존, 피크닉존, 포레스트존, 다이내믹존 등 테마별로 어울리는 대왕참나무 외 15종 9만여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파고라, 야외테이블 등 편의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폐철도변 길에는 꽃무릇 등 16여종의 자생화를 식재해 주변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주민들의 새로운 운동공간, 힐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군산시 청년들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력사업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센터를 조성했다.지난 2019년 11월 15일 개소해 운영 중으로 군산 상공회의소 건물 3층 청년강당과 세미나실, IT교육실, 4층은 메인공간으로 청년도서관, 공유카페, 공유주방으로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또한,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 군산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창업꿈나무 사업단이 함께 있어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 지원하고 있다.2020~2022년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군산경찰서와

김현태/기자

임실군 환경분야 평가에서 2관왕 달성

환경개선부담금 평가, 미세먼지 분야에서 전북 최우수 기관 선정돼 2관왕 달성

임실군이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각종 평가에서 높은 사업성과를 내며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환경분야에서 또 한번의 수상소식을 전했다.

18일 임실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실시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9일 전라북도의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분야에서도 91%라는 높은 징수 실적을 달성하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로써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환경분야에 있어 2관왕을 달성하며 전북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는 생물성 연소 저감 이행, 비상저감조치 이행, 친환경 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주요 사업 집행, 정부 주

요시책 추진 5개 분야 16개 지표를 토대로 전북도가 종합 분석·평가했다.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정정임실의 면모를 과시했다.그동안 임실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물성 연소 집중관리지역 6개소 선정·관리,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534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32대 등 청정 임실을 유지하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는 임실군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 및 홍보와 더불어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각종 평가를 대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상 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군민의 건강



과 밀접한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최하은/기자

전남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해남군' 선정

국비 11억 확보...저소득 가구 최대 8만원 지원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돼 국비 10억 6천 100만 원을 확보했다. 중앙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농식품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을 비롯 지역 신선 농산물의 소비촉진 체계 구축,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지역푸드플랜·식생활 교육과의 연계성,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전남에선 유일하게 해남군이 선정됐다.

해남군은 국비 10억 6천 1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 3천 851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바

우처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는 4만원, 2인 가구 5만 7천 원, 3인 가구 6만 9천 원, 4인 이상 가구는 8만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식품바우처 전용 카드를 통해 해당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농협몰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와 과일, 흰우유, 신선 계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식소비 지출액은 전체 평균의 60% 수준으로 이는 최저식품비의 약 70% 수준이다"며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영양을 개선하고 도내 농산물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완도군 원격 화상진료 등 의료취약지 지원 성과 빛났다

의료취약지 지원 운영 우수기관 선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수상

완도군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성과 공유대회'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임하안 신지 동고보건진료소장이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했고 소안 횡간·신지 동고·청산 모도·고급 덕동·군외 고마·금당 삼산 보건진료소장 등 6명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완도군보건의료원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 주민들을 위해 2016년부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으로 원격 화상진료를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5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를 시작해 현



재 18개소에 실시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시스템이다. 보건진료소장이 보건진료소를 내방한 환자의 병력, 증상을 파악한 후 원격지 의사에게 화상으로 협진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 질병에 대해 직접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원격 화

상진료를 통해 도서벽지 주민들은 육지로 나가지 않고 시기적절한 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완도군보건의료원 김선종 원장은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켜 의료 사각지대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순천시, 네덜란드에서 유기농 튜립알뿌리 선물받아

순천시가 지난 16일 네덜란드 왕정으로부터 한통의 편지와 함께 튜립 알뿌리 1700구를 선물로 받았다. 네덜란드 왕정에서는 허석 순천시장에게 편지를 통해 2021년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수교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순천시와 네덜란드 왕정이 맺어온 우호·협력관계를 기념하고 미래 연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유기농 튜립알뿌리 1,700구를 순천시에 보낸다고 전했다. 또 편지에는 이번에 보내는

2021년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 내년 4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꽃피울 예정

튜립 알뿌리가 한국으로 보내는 첫 번째 유기농 알뿌리이며 이 유기농 알뿌리는 경작에서부터 보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농약이 일절 사용되지 않은 종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내년 봄에 개화를 위해서

는 가능한 빨리 식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순천시민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튜립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향유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네덜란드에서 선물 받은 유기농 튜립알뿌리 1,700개를 순천만국가정원 내 네덜란드정원 연출을 통해 네덜란드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내년 4월 초에 즈음해 순천시민과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최하은/기자



나주시,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행안부 장관상' 수상



나주평야정보화마을 농산물 온라인 판매·체험 실적 우수

나주시 남평읍 '나주평야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실적에 힘입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보화마을은 정보화 흐름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및 전자상거래 정보 콘텐츠를 구축·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농 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번 평가는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것으로 전국 291곳을 대상으로 선·발전·노력·참여마을로 구분해 우수 마을을 선정했다. 2004년부터 정보화마을로 지정·운영 중인 나주평야마을은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한 실적에 힘입어 '발전' 마을에 선정됐다. 올해 대표 특산품인 나주

배·비자넬·생들기름·통흑마을 판매동과 딸기·옥수수 수확, 도자기 자연염색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6천만원, 오프라인 2억원, 체험활동 1억원 등 총 3억6000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최성봉 마을위원장장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단합해준 마을위원들과 작목반, 주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특산물 품질개선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 주민화합과 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예산군 예당호 느린호수길,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심사위원회' 수상



국제적 경관도시 발돋움, 관광객 유치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코로나 19 시대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예당호 느린호수길'이 UN해비타트가 수여하는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심사위원회'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18일 군에 따르면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들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도시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룬 도시, 지역, 사업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이다. 올해 시상은 UN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 해

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지역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기존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다 친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해 경관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지난 2016년 8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준공됐으며 총 7km의 비순환형 코스로 구성돼 있다.

예당호 수문 둘레길과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를 거쳐 3개의 테마길로 이어지며 지난해 4월 국내 최장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으

로 현재까지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등 예산 관광의 신흥 메카로 부상 중이다. 또한 이번 수상은 기관 간 협력이 빛을 낸 사례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예산군이 신청 대상지 구성부터 분상 준비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으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등 향후 예당호 개발, 관리에 있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예당호가 국제적인 경관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예당호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 세계에도 알려지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임사도서관, '겨울방학교실' 수강생 모집

현직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직접 지도하는 특별한 기회

계룡시 임사도서관은 오는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계룡시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교실-독서 세계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학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방학 중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학업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계사 교실은 도서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과정으로 2018 중등교과 개정에 의해 예비 중2 부단이 커지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고단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사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겨울 방학교실에 관해 중학생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특히 독서교실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속 현직 중학교 국어 교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물론 실질적인 독서능력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독서교실'은 임사도서관 다목적

실에서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 오프라인으로 '세계사 교실'은 주제 특성상 연속성을 위해 1월 마지막주 월~목 연이어 저녁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김원호/기자

영동군, 올 한해 영동을 이끈 핵심 사업들 선정

군정성과 베스트-5, 최고 사업은 '코로나19 저지'

충북 영동군이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군정을 빛낸 핵심 사업들을 꼽았다.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끈 군정성과 베스트-5를 최종 선정했다. 이 제도는 공직 내부의 건전하고 생산적 경쟁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군정 곳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주요시책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새해를 내실있게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각 부서 우수 사업과 시책을 추천받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6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긴 장마 및 연이은 태풍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세심한 군정을 추진한 결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군 보건소의 '적극행정의 코로나19 방역'이 뽑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군보건소와 영동병원에 선별진료소를 꾸리고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자가격리자를 집중 관리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교육, 방역물품 배부 등으로 생활방역문화를 정착시켰고 독감예방접종 확대



실시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겼다. 이외 핵심사업에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권리구제를 지원한 기획감사관의 '4군 법대책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한 경제부의 '영동사랑상품권 이용 확대'가 뽑혔다. 이어 농촌지역주민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300억원을 확보한 건설교통과의 '농촌형약 시범지구 선정',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한 안전관리과의 '코로나19 및 수해피해 복구 등 적극적 재난 대

응',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조성의 필수단계인 힐링사업소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자사업 유치'도 핵심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 역량을 한데 모아 대내외적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정성과 베스트-5는 군민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5만 군민과 7백여 공직자의 소통이 만든 값진 결실들이다"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영동을 만들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본격 추진

인구 5만 도시 실현을 위한 청신호

충북 괴산군이 본격적인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괴산을 도심지역의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의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가 21일부터 착수한다. 문화재청의 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0만3,392㎡의 사업부지에 공공주택 및 공공문화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LH임대주택 350호, 분양주택 1,431호, 단독주택 35호,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주인구 33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그동안 군은 신혼·청년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 12년 연속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지가 현



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군은 이번 개발을 통해 주택 부족 및 전·월세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괴산을 서부리 일원에 공동주택 611세대를 건립하는 민간업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해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군은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

해 기존 도심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괴산읍 도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관계자는 "괴산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주거대책 마련으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논산시,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대한민국 일자리어워즈 최고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일자리어워즈 최고상 수상

논산시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최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논산시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일자리어워즈 대상' 심사 결과 최고상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11월 개최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참여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8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7개 등 총 15개의 기관이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심사 절차는 참여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공적조사 서류심사를 거쳐, 온·오프라인 전시내용을 평가하는 전시심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심사로 이뤄졌으며 우수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사례에 대한 창의성, 파급력, 지속성, 융합성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논산시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식품업체에 2300억원을 투자, 인프



하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제시한 것은 물론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국방클러스터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정책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및 완전고용 일자리 안전도시 조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논산형 일자리모델 발굴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발에 앞장서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 모델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상생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논산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일과 행복이 있는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부여군, 2020년 자원순환분야 우수기관 선정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등 각종 신규시책 발굴성과, 자원순환 문화조성 앞장

부여군이 충남도가 주관한 2020년 자원순환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항목은 자원순환사업 추진성과, 우수사례 및 파급효과, 외부기관 평가 등 자원순환분야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꼼꼼하게 이뤄진 가운데 부여군은 처음으로 자원순환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다.

특히 군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100세대이상 아파트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범운영과 가정용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기 설치지원 사업을 금년 처음 실시했고 대형폐기물스티커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언제든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단배출을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크게 도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군은 생활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기 자원순환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실시 등으로 자원순환 문화조성에 앞장서 온 부분과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와 클린하우스 운영, 분리수거함 등 거점수거시설 적극 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 선정,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신규 우수시책들을 적극 추진한 점을 크게 평가받았다. 군 관계자는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해 나아가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기후위기에 오는 각종 재난을 이겨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부여군이 처음으로 자원순환분야 우수기관 선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더욱 자원순환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꼼꼼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고구마 재배 달인'...농어촌발전대상 최용호 씨

제28회 충남농어촌발전 대상 시상식...4개 부문 14명 수상 영예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최용호 씨가 '제28회 충남 농어촌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 씨는 전국 최대 고구마 재배면적을 확보, 맞춤형 농기계 활용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육·수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로가 인정됐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농어촌발전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어촌발전상은 농어업인 사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해 도입한 도내 농어업 분야 최고 영예의 상으로 매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작목·시책·지원기관·특별상 분야에서 추천을 통해 심사에 오른 31건 가운데, 최 씨를 포함한 14명이 부문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수상한 최 씨는 고구마 재배 24년 차로 지속적인 영농규모 확대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생산된 전량을 서울 가락동 시장에 공급하는 등 충남

고구마 위상 제고에 앞장섰다. 또한 재배기술 개선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고품질 고구마 생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구마 수확 전용 농기계와 이탈리아산 심경쟁기를 활용,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생육·수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작목 부문에서는 식량작물 남궁훈 원예특작 임효목, 양정순 임업 서동은 축산 남정현, 임인자 수산 황기연 씨 등이 각각 수상했다. 시책 부문에서는 청년농업인 안상직 농촌융복합 박근준 수출 이계욱 씨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원기관에서는 논산

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선정됐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농협중앙회전안시지부와 친환경농업 선도자 정운섭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승조 지사는 "농업은 충남의 미래다. 농업·농촌의 발전이 충남의 번영과 성장은 없다"며 "앞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촌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28차례에 걸쳐 총 617명의 우수 농어업인과 기관·단체를 농어촌발전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고정화/기자

창원시, 제10회 공무원 대상 선정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창원을 빛낸 이성자 주무관 영예 안아

창원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시정을 빛낸 창원시 공무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무원 대상은 '창원시 공무원 대상 운영 규정'에 따라 매년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업무 실적이 탁월하고 동료에게 존경받는 우수 공무원 1명을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올해 제10회 창원시 공무원 대상의 영예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이성자 감염병관리 담당

계 돌아갔다. 이성자 감염병관리 담당은 코로나19 방역 대책본부 상황실 총괄 책임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에 헌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정신 재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정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이 있다. 또한, 평소 신뢰성 있는 언행과 책임성 있는 업무 처리로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매우 높아 명예의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지용 인사조직과장은 "창원시 공무원 대상 선정을 통해 직무에 더욱 충실하고 시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이천농기센터 박종인 팀장,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우수상 수상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박종인 인력육성팀장이 '2020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농업기술 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을 통해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지방농촌진흥공무원을 선발하는 농촌진흥사업의 최고의 상이다. 2020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8월부터 12월까지 후보추천 및 평가심사를 실시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와 3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박종인 팀장은 2016년과 2017년에 식량작물팀장으로서 국내육성 이천벼 품종 개발을 추진해 조생종으로 '해들'을, 중생종은 '알찬미'를 개발했고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신둔면농업인상담소장으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농사정보를 제공했다.

이전까지의 이천쌀 품종은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한 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리 품종이었다. 이천시는 국내육성 품종을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2016년 4월 12일에 농촌진흥청 + 이천시 + 농업이 '이천벼 품종개발 시험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험포장을 운영해 '수원 588호'와 '수원600호'를 선발했다.

이천시민 공모를 통해 '수원588호'는 "해들"로 '수원600호'는 "알찬미"로 정하고 2019년에 품종보호출원을 했으며 2019년에는 해들을, 2020년에는 알찬미를 상품으로 출시하게 됐다. 이천시는

향후 2022년까지 해들을 1,000ha, 알찬미를 6,500ha 재배해 이천 전 지역에 국내육성 품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인 팀장은 신둔면농업인상담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시시때때로 농사정보를 문자로 발송했다. 주간농사정보 제작 건수는 211편이며 농가에게 보낸 문자 건수는 무려 5만 건이 넘는다. 시기별로 필요한 농작업을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 줬으며 개인 핸드폰으로 농가에게 일일이 발송했다. 농가에서는 상담소장이 보내주는 농사정보를 무척 고마워했다. 도입 1리 이병주 이장님은 "농업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시어 큰 지식을 갖게 되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칭찬은 상담소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했다. 글자로는 정보를 충분히 답을 수 없어 도표와 사진을 포함하고 설명을 곁들인 동영상도 만들었다. 주간농사정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링크주소 문자를 보낼 때 같이 보냈다. 농가는 문자로 온 유튜브 주소를 클릭만 하면 바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종인 팀장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채널은 '시골뜨기 가라사대'이다. 구독자가 5,670명이며 지난 일년간 조회수는 50만이 넘고 노출수는 500만이 넘는다. SNS를 활용해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면 교육의 효과

및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올해 이천농업생명대학에서 박종인 팀장은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농사 강의의 했는데, 이 강의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을 때 16,500명이 조회를 했다. 지금까지는 대면 중심의 기술보급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기술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맞춰 비대면 기술보급과 영농지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앞서 시행한 박종인 팀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성율/기자



사회복지법인 아름어린이집 최순화 원장, 대통령상 수상

사회복지법인 아름어린이집 최순화 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식'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복지법인 아름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최순화 원장은 경상북도 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서 영유아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

북 전체의 보육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연계활동에서도 매사에 솔선수범해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최순화 원장은 "앞으로 보육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꾸준한 부모교육·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등 어린이집 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가 행복한 영천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화성시 이예지 주무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0년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내 1위에 따른 유공 공무원 표창

화성시 문화예술과 이예지 주무관이 취약계층 문화바우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당초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7일 자체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이 주무관이 담당한 문화바우처는 문화 취약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이나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주무관은 28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총무팀, 경기문화재단 등 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 대상 100%가 모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 취약계층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를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94%의 예산집행 실적을 거두며 취약계층의 문화 욕구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예지 주무관은 "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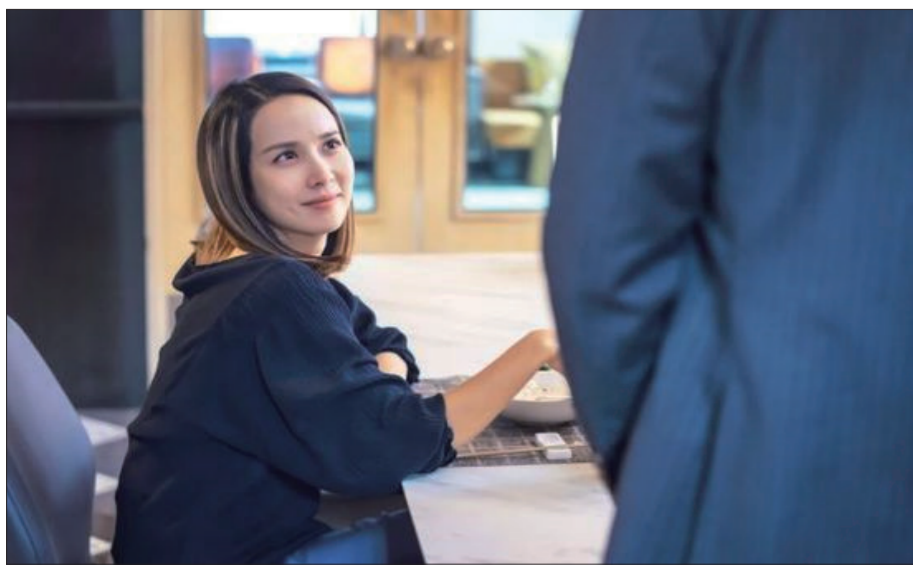
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강여주♥한우성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



김영대 '눈치 제로 타이밍에 등장 '경멸'의 눈빛

‘바람피면 죽는다’에서 조여정과 고준의 격정적인 키스 현상이 포착됐다. 킬링 부부의 후끈한 사생활이 이어지는 순간, ‘눈치 제로’ 타이밍에 등장한 김영대가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모은다.

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17일 강여주와 한우성의 ‘격정 키스’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5회에서 우성은 백수정의 시신을 본 후 죄책감에 휩싸였다. 우성은 술의 힘을 빌려 여주에서 수정과 불륜 사실을 고백하려 했지만,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필름이 끊겨 자신이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다음날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는 여주의 모습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우성은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공개된 사진에는 여주가 출근하는 우성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의아함을 자아낸다.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여주의 분위기가 눈길을 모으는 가운데, 이어진 사진에서는 여주와 우성이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포착돼 키스를 강탈한다.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후끈하게 불타오른 두 사람의 모

습을 발견한 이가 있으나, 어시스트 차수하다.

여주를 감시하는 임무를 띤 수호는 우성과 여주의 애정행각을 멀리서 술하게 보며 그럴 때마다 속으로 분노를 삭여 왔다. 그런데 이번엔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여주와 우성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고 있는 수호가 두 사람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어 과연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바람피면 죽는다’ 제작진은 “오늘 방송에서는 강여주가 한우성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두 사람에게 국경일 같은 특별한 결혼 기념일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며 “킬링 부부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가 아내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로 죄책감을 안고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과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석 PD와 지상파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전순희/기자

‘라디오스타’ 윤종신-유세윤-규현, 700회 역사에 지분 다수

前 MC들 게스트로 전격 귀환 ‘라스 칠순 잔치’ 꿀잼각

700회를 맞는 ‘라디오스타’ 칠순 잔치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의 등장이 예고돼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라디오스타’ 700회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전 MC 3인방 윤종신, 유세윤, 규현이 게스트로 전격 귀환한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 말미에는 다음 주 윤종신, 유세윤, 규현과 함께하는 700회 특집 ‘라스 칠순 잔치’가 예고됐다. 다음 주 게스트 3인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꿀잼각”, “무조건 본방사수”, “그리운 얼굴들 등장 현 MC들과 티키타카 기대” 등 벌써부터 ‘라디오스타’ 700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가 시정자들이 예고만으로도 뜨거운 기대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700회를 빛내 줄 게스트 윤종신, 유세윤, 규현 3인과 ‘라디오스타’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과 사연 때문. 세 사람은 MC로 활약해 사랑을 받은, ‘라디오스타’ 700회 역사에 지분을 가진 이들이다. ‘라디오스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윤종신은 2007년 5월 방영된 첫 회부터 지난해 9월 11일 634회까지 12년 동안 단 1회도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지켰던 터줏대감이다. 자신의 음악 창작 프로젝트인 ‘이방인 프로젝트’ 준비에 전념하고자,

이유 있는 이별을 선언하며 ‘라디오스타’를 떠났다. 많은 이들이 간직 MC 윤종신의 활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MC 아닌 게스트로는 처음으로 ‘라디오스타’에 등장하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규현은 가장 오랜 기간 막내 MC로 활약했다. 회를 거듭할수록 ‘라디오스타’화 되면서 ‘구라 주니어’라는 별명을 얻으며 사랑받았다. 유세윤은 MC로 게스트로만 네 번 출연하며 ‘라디오스타’와 끈끈한 인연을 자랑해 왔다. ‘라스’ 700회 역사에 저마다 지분을 가진 윤종신, 유세윤, 규현이 게스트로 등장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스튜디오 원편에 나란히 앉아 MC 호흡을 맞추며 디저터격하다가도 금세 한 마음이 되어 게스트를 몰고 뜬 공격했던 현 ‘라디오스타’ MC 김규진, 김구라와 구 MC이자 현 게스트로 귀환하는 윤종신, 유세윤, 규현 3인이 어떤 티키타카를 뽐낼지 궁금하다. 매주 수요일 밤 한결같이 안방에 빅 웃음을 투척 중인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700회를 맞이해 ‘라디오스타’를 빛낸 전 MC 윤종신, 유세윤, 규현을 게스트로 초대했다.

현, 구 MC들의 차진 호흡과 토크를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700회 특집 ‘라스 칠순 잔치’는 오는 23일 수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최광수/기자



대전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2020 Christmas Concert”

12. 22. 19:3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대전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2020 Christmas Concert’가 오는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연주회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다양한 캐럴 곡들로 꾸며진다. 섬세한 음색의 아카펠라, 타악기, 트럼펫 등 다채로운 악기가 어우러지는 캐럴 모음곡으로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담아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김동혁 전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아름답고 화려한 트럼펫의 선율과 생동감이 넘치는 아프리카 및 라틴 계열의 타악기들이 함께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준비했다. 여러 나라의 전래 크리스마스 캐럴들로 꾸며지는 이번 연주회는 독일 전래의 캐럴 ‘한 송이의 장미가 피었네’를 시작으로 전반부는 영국의 전통 캐럴을 비롯해 인도 민요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 캐럴 모음곡으로 꾸며진다. 젠스 편곡의 캐럴 모음곡 ‘즐거워 환호 속에서’, 흑인영가 ‘산위에 올라 전하라’, 부르코뉴의 전통 캐럴 ‘파타-판’ 등을 선보이며 타악기와 트럼펫 연주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월터 스콧의 서사시 ‘호수의 연인’을 가사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찬미와 축복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와 프랑크가 1872년에 작곡한 종교음악 ‘생명의 양식’을 선보여 기쁜 성탄을 맞아 마음의 안식을 안겨주는

고정화/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군산일요화가회전 개최

일요화가회 회원 18인의 다채로운 서양화 전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2021. 1월 10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군산일요화가회전’을 개최한다. 일요화가회는 지난 1965년 서울에서 처음 창립된 미술동호인 단체로 전국 23개 지역에 결성돼 있으며 매년 지역을 바꾸어가며 일요화가회 스케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 일요화가회는 1993년에 결성돼 야외스케치 활동과 연수 등을 통한 예술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군산일요화가회의 27번째 전시로 지도교수 원창희를 포함 18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 작품은 올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떠났던 야외스케치 활동의 결과물로 원창희 작가의 ‘내장산’, 소병근 작가의 ‘어둠속에 희망들이’ 등 서양화 27점이다.

군산일요화가회 회장 김순덕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하하반영 화백의 상설전을 개최했으며 ‘군산일요화가회전’은 7월부터 시작된 전승택 작가의 전각·서각 작품전, 이은숙 작가의 문인화전, 문중배 작가의 서예전에 이은 네 번째 지역 작가 참여전이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장미갤러리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지역 출신의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와 홍보물 제작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군산일요화가회전
The 27th Gunsan Sunday Painters Group Exhibition
2020. 12. 15 (화) ~ 2021. 1. 10 (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2층

원창희 박민근 이홍구 조병현
소병근 윤수경 정승룡 차 안
고 현 이순자 정윤희 채석주
김덕중 이재준 조규례 최창환
김순덕 이정애

“공정성+열정 담은 김준수 마스터가 돌아왔다 김준수, TV조선 ‘미스트롯2’ 심사위원 본격 활약 예고”

김준수, ‘미스트롯2’에 이어 ‘미스트롯’ 마스터로 재출격



김준수가 ‘미스트롯2’ 마스터군단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활약한다. 김준수가 어제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트롯2’ 17인의 마스터 군단에 합류해 트로트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미스트롯’에 이어 ‘공정성+열정 담은 마스터 김준수가 다시 돌아온 것. 김준수는 이번에도 “감성과 진심을 보겠다”라는 자신만의 심사 철학을 밝히며 심사위원으로서 ‘미스트롯2’ 참가자들에게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심사를 전할 것을 예고했고 모든 참가자들의 경연에 집중하고 탄성과 안타까운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시즌의 활약을 기대했다. 김준수가 ‘미스트롯2’에 이어 심사위원으로 다시 한번 출연하는 TV조선 ‘미스트롯2’는 지난해 5월 최고 시청률 18.1%를 화려하게 증명 한 ‘미스트롯’의 두 번째 시즌으로 날로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에 화력을 더하고 제2의 트로트 전성기를 이룰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킬 신개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어제 첫 방부터 최고 시청률 30.2%, 전국 시청률 28.7%를 기록해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며 매주 목요일 밤을 달굴 예정이다. 김준수는 지난 ‘미스트롯’ 심사위원이 이번에도 본인의 어릴 적 데뷔를 반추하며 초등부 참가자에 대한 응원을 잊지 않았다. ‘대전 부르스’를 부른 9살 소녀 김태연의 경연에서는 찬찬히 노래를 감추지 못하며 칭찬했다. 또한 초등부 마지막 주자 이소원이 ‘여러분’을 부르자 참가자의 사연과 함께 진심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후반 왕년부와 아이돌부의 출전에서는 자신의 선배들의 무대에 감동의 눈물이 차오르기도 하며 아이돌부의 연습생 출신이 데뷔를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자 안타까워하며 그의 완벽한 가창에 엄지를 들며 환호하고 격려했다.

이렇듯 김준수는 이번 ‘미스트롯2’ 시즌을 통해서도 본업인 가요와 뮤지컬 장르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활동한 바를 토대로 참가자들에게 따뜻하고 공정성 있는 트로트 심사까지 전할 것을 예고하며 맹활약을 기대했다. 첫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참가자들의 향한 진정성 있고 리얼한 김준수들의 심사 리액션들과 그들의 무대를 바라보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전 세대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은 것. 첫 방부터 시청률 28.7%를 기록하며 이번에도 뜨거운 트로트 열풍을 예고하는 ‘미스트롯2’에서 또 한 번의 트로트 스타를 찾기 위한 마스터 김준수의 더욱 생생한 리액션과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가 기대된다.

최재은/기자

한국민화뮤지엄, 서울 예술의전당 2021 ‘민화의 비상’展 참여 작가 모집

민화의 비상(飛上)展
작가 모집 공고
Minhwa, Tradition and Modernity

2021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민화의 비상> 展 제2장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민화박물관/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민화의 비상’ 공모신청서서 다운 받아 작성 -작가의 창작 방향을 알 수 있는 창작민화 3점 사진 첨부(파일명명을 작품 제목으로 설정) -공모신청서와 작품 사진 3점을 민화의 비상전 이메일(minhwa2@kakao.com)로 제출

<공모 일정>
-공모 접수: 2020. 12. 14(월) ~ 24(목)
-작품 제작: 2021. 2 ~ 6월 말까지
-결과 발표: 2021. 1월 중 선정자 개별 연락

<환영 일정>
-표현 방법론 교육: 2021. 1 ~ 2월 중 예상(일시 확정)
-작품 제작: 2021. 2 ~ 6월 말까지
-작품 촬영 및 포구: 7월 중
-민화의 비상+복합: 서울 예술의전당 211아트홀에서 제2전시실 (2021. 10. 20 ~ 10. 28)

<선정 작가 혜택>
-민화의 비상+복합 참여 기회 제공
-전시 도록 및 티켓 무상 제공

<심사 방법>
-전문가 심사 후 선정
-민수회원 가점 부여

* ‘민화의 비상+복합’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작품 표현 방법론은 본 교육을 통해 선정된 작가들에게만 공개됩니다.
* 선정 작가는 기획자의 방법론 교육을 받은 후 새롭게 제작된 결과물을 전시회에 출품하게 됩니다.

주최 · 주관: 한국민화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기획: 오슬기 (한국민화뮤지엄)

한국민화뮤지엄이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민화의 비상’전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민화의 비상’전은 한국민화뮤지엄 및 본관인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주최/주관한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서관에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6,000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민화 전시 역사를 새로 쓴 바 있다. 해당 전시는 그간의 “무엇을 그리까?” 라는 주제 위주 전시에서 “어떻게 그리까?”의 방법론으로 중심을 전환하고 현대민화가 가지고 있는 현대성은 과연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첫 기획전으로 민화를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제1장. 민화 그리고 초현실주의’에 이어 올해 예정이었던 ‘제2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년 전시도 첫 전시와 마찬가지로 한국민화뮤지엄 및 본관인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유물 중 해당 방법론이 관찰되는 유물과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현대민화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내년 전시에 참여할 작가 25~30명을 공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수회 소속 작가들만 공모에 참여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작가의 소속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수회는 한국민화뮤지엄의 현대민화 공모전인 ‘대한민국민화대전’과 조선민화박물관의 ‘전국민화공모전’의 역대 우수상 이상 수상자들이 속한 단체로 실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현대민화 작가들이 포진해 있다. 결과 발표는 2021년 1월 중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하며 선정된 작가들은 2월 중 방법론 교육을 받고 6월까지 해당 방법론을 적용한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한국의 민화’전 무도 참여 기회와 전시 도록 및 티켓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공모 신청 방법은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 또는 조선민화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창작민화 사진 3점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시 및 작가 공모 관련 세부사항 문의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김장길/기자

한림기술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국토부장관상 수상

알파시티 테스트베드에서 지능형 '도로 솟음 감지 솔루션' 기술개발

대구시는 지역기업인 ㈜한림기술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개최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에서 스마트유지관리 분야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경연대회로 올해에는 101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구 지역 기업인 ㈜한림기술은 디지털 센서 모듈과 사물인터넷 전용 통신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로 동작 가능한 도로 솟음 감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원격지에서 자동으로 도로 솟음을 감지할 수 있어 도로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로 솟음' 현상은 온도, 습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도로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수축 또는 팽창하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과도하게 팽창해 도로 일부가 변형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타이어 펑크 등 차량 파손을 초래하거나, 때로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솔루션은 한림기술과 대구시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했으며 개발 과정에서 알파시티 테스트베드에 솔루션을 사전 적용하고 검증하는 문제점 개선과정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태훈 한림기술 대표는 "절단 기술을 적용해 신제품을 만들더라도 현장에 적용해서 시험할 수 없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대구시의 지원으로 시설물에 직접 적용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한 것이 이번 수상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베드 활용이 중요했음을 강조했다. 흥의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해 개발한 새로운 기능의 제품과 솔루션이 현장 검증을 못해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구시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 한림기술과 같은 지능형 시설유지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한림기술의 솔루션을 내년부터 전국 도로관리에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류석/기자

화성산업진흥원 출범. 지역산업 컨트롤타워 기대

기업지원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수립, 강소기업 육성 등

화성시 산업경쟁력을 이끌어갈 '화성산업진흥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18일 화성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사장 및 발기인대표는 서철모 화성시장 및 발기인대표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회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맡았다. 이 외에도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고희준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박승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박준석 국민대학교 교수, 임교빈 수원대학교 부총장, 배순길 세무사 등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화성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가 직접 3억원의 출자를 통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다.

내년 3월 봉담읍 원희개울 5층에 혁신전략팀, 기업지원팀 2개 팀 총 15명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관내 기업 간 거래 활성화, 산업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핵심기술 R&D 및 제품인증 지원,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산업 진흥,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진흥원은 관내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관계망 및 산업생태지도 등을 확보해 보다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산업진흥원은 제조업체 수 전국 1위에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화성의 명성이 이으면서도 누구나 일자리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부평구 도시재생뉴딜 핵심 앵커시설 '혁신센터' 본격 시작

LH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부평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혁신센터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양 기관의 합의 아래 협약식 행사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추진됐다.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앵커 사업으로 부평구 부평동 65-17번지 일원에 행복주택 350호와 공공임대주택 1천500㎡, 공영주차장 300면, 공공지원센터 1천100㎡, 푸드플랫폼 6천340㎡ 등이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로 복합건축된다. 국비와 시비, 구비를 비롯해 LH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며 총 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이다. 혁신센터 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감정평가금액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영주차장'은 골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상설되는 공영주차장을 일부 대체할 예정이며 '공공지원센터'에는 부평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설치돼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부평구 전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푸드플랫폼'은 도시재생



을 목표로 조성하는 특성화 시설로 음식 관련 창업교육과 기존 상인들의 재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창업보육시설', 교육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골포천변 상가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지원시설', 푸드스쿨과 전시장 등으로 구성된 '집객앵커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평구는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에 이어 2018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및 국비지원 확정, 2019년 6월 오수정화조부지 매입협약 체결, 동년 8월 오수정화조부지 반환승인, 2020년 1월 오수정화조부지 매입완료, 동년 11월 혁신센터 세부 사업계획 확정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혁신센터 조성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오수정

화조부지에 대해 지난 9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보존자문회의를 열어 보존물품 10종을 선정했다. 해당 물품은 향후 혁신센터에 조형물 등으로 재설치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하는 기록화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시협약으로 부평구와 LH 간 사업추진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결정한 만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인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포함된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내용은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 홍보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한국판 뉴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첫 사업

광명시립철산어린이집 준공, 김현미 국토부장관 방문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국 첫 사업'으로 진행된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완성됐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립철산어린이집(광명시 철산동 소재) 리모델링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오경 국회의원, 백재현 전 국회의원,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첫 결실을 축하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립철산어린이집은 21년 된 노후건축물로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당초 시는 노후건축물 수명연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열 손실 없이 언제나 깨끗한 공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쾌적한 어린이집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시립철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5억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특히 열손실 방지를 위한 고효율 단열재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기구 및 페넬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한 콘덴싱 보일러 및 옥상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 사업 이전 대비 에너지 소요량이 88% 이상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냉·난방비를 연간 520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를 통한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률 79%를 달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오래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단열이 안 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여 효율성이 낮았는데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추위와 더위,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어린이집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제로에너지인증(3등급)으로 명실상부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어린이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첫 결실을 맺은 광명시를 찾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린 공공건물로 새단장한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완성되어 광명시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축하드린다"며 "시립철산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주도한 그린뉴딜 사업에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뜻깊은 성과를 낸 만큼 한국형뉴딜의 선도적 사례로 타 시·군에 전파되길 바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 통해 노후 된 공공건축물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 '스마트 그린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농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1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고덕국제신도시 핵심입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전용면적 78~93㎡, 총 660가구 공급
 - 일조권, 조망권 고려한 단지 설계로 우수한 상품구성...커뮤니티와 상업시설도 눈길
 -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청약 일정...28일(월) 특별공급, 29일(화) 1순위 청약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18일,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나선다.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견본주택을 온라인으로 재현해 놓은 세대별 VR영상을 마련해 수요자들이 단지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분양 관련 전문가들의 영상을 마련해 단지의 입지부터 세부적인 상품 구조와 유니트, 내부 자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계획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주상복합용지 Ebc-2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9층, 3개동, 총 66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실내 생활시간 증가로 높은 수요자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되어, 전 타입이 4bay 이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78㎡ 86가구, ▲84㎡ 170가구, ▲84B㎡ 169가구, ▲93A㎡ 90가구, ▲93B㎡ 135가구, ▲93C㎡ 3가구, ▲93D㎡ 7가구다.
 이 단지는 오는 2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화) 1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내년 1월 20일(수)부터 29일(금)까지 10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 '힐스테이트'만의 특화 설계 및 시스템 선보여 주거 만족도 극대화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은 '힐스테이트'로 선보이는 만큼 실수요자의 취향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탁월한 상품 설계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위주로 조성되며, 단지 간 조망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될 계획이다. 외관에는 커튼월록을 적용해 고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지상 49층 높이로 조성돼 일대 랜드마크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93C, 93D(5Bay)를 제외한 전 타입이 4Bay, 판상형으로 조성돼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최

대 2.6m의 높은 천장고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높은 주거패적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며, 드레스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각 세대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울 스마트기술도 적용된다. 모든 호실에 힐스테이트만의 IoT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돼 입주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내부 기기 제어 및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돼 통합 월패드로 세대 내 기기 제어가 가능하며, 일괄소등, 엘리베이터 홀, 무인택배, 주차관제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0만 화소 CCTV를 설치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 등의 보안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지 조경에는 에버랜드 조경을 맡은 바 있는 삼성물산 조경사업팀(구 에버랜드, 예정)이 나서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중앙광장에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모티브로 한 '유니언잭 스퀘어'가 마련될 예정이며, 영국 티 가

든의 고급스러운 정취미를 재현한 영국식 정원 '베드포드 가든'이 마련돼 인근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한 '맘 앤 키즈' 특화공간으로 자리할 전망이다.또한, 중앙광장을 조망하는 '트리니티 가든'과 캐러비안 워터폴의 파도와 해적선을 도입한 소규모 워터파크인 '캐러비안베이 물놀이터'도 계획돼 있어 예비 입주민들의 기대를 얻고 있다.이 밖에도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사우나와 주민운동시설, G/X, 스티디룸,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 웰스톱 라이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생활인프라 등 입지적 강점 기대되는 고덕국제신도시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은 고덕국제신도시 핵심입지 비즈니스 콤플렉스 타운에 위치한 만큼 입지적 장점도 두루 갖추고 있다.우선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과 차량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SRT·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도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특히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

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철도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가까워 관내 주요 지역 이동도 수월하다. 이외에도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한 편이다.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가칭)고덕초등학교·고덕중학교가 2023년 9월 개교 예정이며, 약 16만 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인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중심상업지구 내 학원가 형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가까이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함박산 중앙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또한 단지 1km 이내에 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도서관 용지가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랜드마크급 상업시설 '브리티시 고덕'도 동시 공급해 눈길
 단지 내 조경시설과 연계한 대형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브리티시 고

덕'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에는 영화 해리포터에서 급행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 테마의 게이트 '킹스크로스', 세계적인 포토스팟인 비틀즈 힐단보도를 재현한 팝뮤직 테마명소 '에비로드', 거리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브릭레인' 등이 구현될 예정이라 이국적인 테마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는 소비층을 확보해 지역 내 명소가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상업시설은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어 상권연계에 따른 유동인구 흡수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문고·SSM·키즈시설 등 앵커테넌트 입점 계획을 추진 중이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한편,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2에 자리하고 있다.
문의1811-0133
 사이버 모델하우스
 주소https://m.hillstate-hec.co.kr/Salesinfo/s_place_view_renew.aspx?apt_num=116
 김남주/기자



※ 본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와 다릅니다.